

#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소식

제호 :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소식 | 발행일 : 2009년 3월 | 발행인 : 황윤영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55-5번지 102호 (135-010)  
TEL : (02) 512-5915 | FAX : (02) 512-5421 | www.ksgoc.or.kr | E-mail : gyncancer@gyncancer.or.kr



KOREAN SOCIETY OF  
GYNECOLOGIC  
ONCOLOGY AND COLPOSCOPY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곳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 안팎으로 혼란스러운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  
지 걱정스럽습니다.

미국발 경제위기에서 시작된 근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전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90년대 말 IMF 후 십년만에 다시  
찾아든 국내 경기 한파에 근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각 국가에서 미래 국가성장동력에 관하여 여러 분야에 걸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  
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우수한 인재들이 의과대학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우려하는 시각으로 보기도하지만 이를 기회의 발판으로 이용할 수도 있으리라는 새로운  
시각 또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거 우수한 인재들이 이공계열로 모여들어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냈듯이 줄기세포를  
위시한 의료분야가 우리나라 국가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을 개대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학회는 이번에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여 학회를 꾸러나갈 준비를 하며 몇 가지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현재 우리 학회는 그동안 역대 회장님들과 임원진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국내에서 권  
위있는 학회로 인정받을 뿐 아니라 국제학회에서도 어느 정도 입지를 구축했다고 생각됩  
니다. 이에 이제는 학회의 내실을 기해야 할 적기입니다.

먼저 작년 회장단에서 부인종양학회지를 영문화하는 큰 업적을 세운만큼, 이제부터는  
더욱 많은 회원분들의 논문투고를 독려하기 위해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  
다. 본 학회지가 해외 우수 논문들과 당당히 비교될 수 있을 만큼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인종양 연구회(KGOG: Korean Gynecologic Oncology  
Group)는 비록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선생님들의 열정과 투지로 현재  
GOG study에 참여하는 등 눈부신 발전을 보이고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자입니다. 이에 한발  
더 나아가 우리나라나 아시아권에서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자궁경부암, 임신성 용모상피  
질환 등의 분야에서 독창적인 protocol을 개발하여 제안함으로써 우리의 힘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KGOG 과제들의 성공적인 결과물이  
앞서야 하므로 몇몇 병원들만이 아닌 여러 병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의견  
을 수렴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8년 11월에는 한양대학교에서 아시아 부인종양학회(ASGO: Asian Society  
of Gynecologic Oncology)를 창립함으로써 미국의 SGO (Society of Gynecologic  
Oncology), 유럽의 ESGO (European Society of Gynecology Oncology)처럼 아시아  
부인종양 전문의들의 학술, 교육, 교류 등을 정기적으로 이루어나가 세계적인 학술단체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며, 이에 우리 학회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회는 학술적인 단체인 만큼 학문적인 면모가 가장 중요하지만, 또한 학  
회 내의 화합이 바로서야 그 조직이 무탈하고 더욱 견고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  
서 아직은 확고히 정립되지 못한 회칙을 이번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정리하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동안 큰 변화를 이루기는 어렵겠지만, 작은 변화들이 모이다 보면 큰  
변화를 이루리라 확신합니다. 학회 및 학문의 발전이라는 것이 집행부의 힘만으로 이루  
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원님 개개인의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힘을 이루  
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며, 본 학회는 이를 위해 회원님들이 학문의 뜻을 펼치는 밑거름이  
되며,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게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언제나 진료 및 연구에 매진하시는 선생님들의 가정과 병원에 충만  
함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4월 대구에서 뵙겠습니다.

대한부인종양 · 콜포스코피학회  
회장 황운영

## contents

2009년 3월(통권 제15호)

- 2** 회장 인사말
- 3** 제14차 KSGOC 추계심포지엄 참관기
- 5** 2009 GOG (Gynecologic Oncology Group) 78th Semi-Annual Meeting 참관기
- 8** Society of Gynecologic Oncologists (SGO) the 40th Annual Meeting on Women's Cancer 참관기
- 11** 부인종양 논문 의무 제출자 우수논문상, 학회지 공로상 수상 내역
- 12** 37th Global Congress of Minimally Invasive Gynecology (AAGL) 참관기
- 14** 제13차 세계 자궁경부병리 및 콜포스코피학회 참관기
- 15** Harald zur Hausen 교수의 노벨의학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 17** APAGE 참관기
- 19** 12th IGCS 참관기
- 21** 해외 연수 후기
- 23** 해외 연수 후기 "Making Cancer History" 발사취를 따라서
- 26** 제24차 KSGOC 학술대회 프로그램
- 27** 학회 회무보고
- 34** 회원동정
- 34** 2009년 주요 학회 일정
- 35** 편집후기
- 36** 대한부인종양 · 콜포스코피학회 조직도

# 제14차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추계심포지엄 참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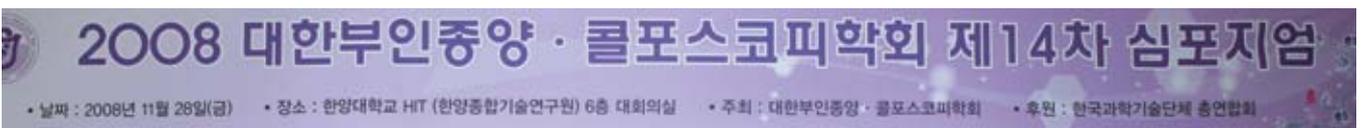
건국대학교 산부인과 이 선 주

오늘은 제14차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심포지엄이 있는 날이다. 이른 시간에 서둘러 나와 멍하기는 하였으나 학회장에 도착하자마자 Dr. Robert J Kurman을 찾아 인사를 드렸다. 전날 저녁 9시 비행기로 인천공항에 도착한 Dr. Kurman을 혼자 마중 나가 호텔에 모셔 드리고 check-in을 도와 드렸기 때문이었다. 사연이 많았다. 원래 KGOG workshop에도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던 Dr. Kurman은 이를 전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시카고 상공에서 타고 있던 비행기에 연기가 나는 사고로 비상 착륙하여 다음 날 항공사에서 부랴부랴 마련해준 비행기를 타고 온 것이었다. 그 덕분에 외래 중간에 국제전화 통화를 여러 번 해야 했고 수술 스케줄도 급히 조정해야 했다. Dr. Kurman은 한식집에서의 저녁 만찬도 놓치고 몹시 피곤해하며 잠자리에

들어 제대로 강의를 할지 걱정이 되기도 하였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갔다.

김경태 학회장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첫 번째 Session이 시작되었다. Gynecologic pathologist로서 많은 연구 업적이 있는 Dr. Kurman은 난소의 serous borderline tumor는 일반적으로는 양성이나, 이중 적은 수가 malignant transformation을 하며 이를 low-grade invasive serous carcinoma의 직전 precursor라 하였다. 또한 invasive implant를 low-grade carcinoma로 바꾸어 명명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전날 KGOG workshop에서 발표했어야 할 내용을 보강하였다. 20분 정도로 요약해 주길 부탁하였지만 미안하였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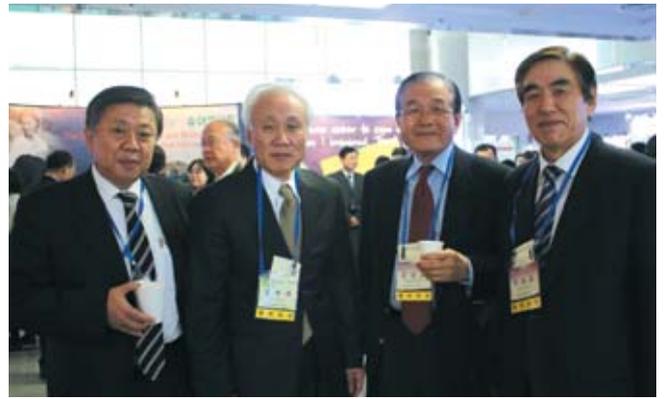
비한 모든 걸 강의하여서 진행이 늦어지게 되었다. Dr. Kurman은 'Dualistic models of ovarian carcinogenesis'라는 개념하에 난소암을 type I, type II로 나누며 type II에는 High-grade serous carcinoma, carcinosarcoma, undifferentiated carcinoma가 있고 이는 p53 mutation 및 high-level의 genetic instability가 특징이라고 하였다. 또한 진행이 빠르기 때문에 stage I의 진단보다는 minimal disease의 진단으로 관점을 바꾸어야 하며, 장치는 marker detection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울산의대 김규래 교수님은 ovarian mucinous carcinoma에서 'True destructive stromal invasion'의 존재유무와 크기가 치료 및 예후에 중요하며, 타 장기에서 난소로의 전이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제14차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추계심포지엄 단체사진



Dr. Kurman과 함께



KSGOC 역대 명예회장님

첫 번째 session이 끝나고서야 오랜 만에 뵙는 여러 선생님들과 인사도 나누고 사진도 찍으면서 학회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었다. 가벼운 다과 덕분에 머리가 맑아지고 다시 힘이 났다. 두 번째 Session은 다시 Dr. Kurman의 강연으로 시작되었다. Complex atypical hyperplasia와 well differentiated carcinoma는 치료 관점에서 single entity로 볼 수 있으며 40세 미만에서 progestin 치료는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40세 이상에서도 poor surgical candidates에서는 성공적인 치료 방침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어서 Dr. David Miller는 GOG에서 진행되는 endometrial cancer의 여러 study에 대해 소개하였다. 지명 토론에 나온 강석범 선생님은 진행된 endometrial cancer에서의 RT의 역할과 바람직한 chemo-regimen에 대해 질문하였고 진지한 답변이 이루어졌다.

GSK가 후원하는 오찬 강연에는 김병기 선생님이 자궁경부암의 국내 현황 및 Cervarix의 조성, HPV 45, 31과의 cross protective efficacy 등을 설명해 주셨으며, ASO4에 의해 항체 level이 더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특징이 있음을 알려 주셨다. 또한 나이든 여성의 새로운 감염 혹은 반복 감염을 막기 위하여 백신이 필요하고, 따라서 과거에 감염되었던 경우에도 접종이 필요하다는 설명과 함께 학회의 권고안으로 26~55세 여성도 면역원성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접종 가능함을 알려 주셨다. 그 동안 이 연례에 해당되는 환자들의 요구에 애매한 답변을 줄 수밖에 없었던 걸 이제는 바꿀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되었다.

이어서 점심 시간이었다. 식사 후 깔끔한

한양종합기술연구원을 둘러본 후 여러 선생님들과 담소를 나누게 되었다. 역시나 올해도 전공의 수급 문제가 여러 병원의 주된 관심사였으며, 전반적으로는 모든 분들이 어두운 느낌을 주는 분위기였다. 아마도 학회 발전 방향에 대한 여러 선생님들의 고민이 느껴져서였던 것 같았다.

오후 첫 번째 Session은 satellite symposium I로서 첫 번째 연자는 Dr. Alfred O. Mueck였다. Dr. Mueck은 progestin들이 endometrium과 mammary gland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르며, MPA는 같은 용량에서 endometrium과 mammary gland에 같은 영향을 미치나, DRSP는 자궁보호에 필요한 농도보다 더 높을 때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progestogen의 선택은 유방암의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중요한 것임을 역설하였다. 류기성 선생님은 Gardasil의 unique feature로서 자궁경부암, 질암, 외음부암, 생식기사마귀에 예방 효과가 있으며, 그의 중년에게도 효과가 있음과, 교차예방효과, 면역기억 효과, 안전성 등을 들어 주셨다. 김용만 선생님은 'Recent advances in cellular and molecular targeted cancer immunotherapy' 주제로 발표해 주셨다. 다소 어려운 내용이었으나 아산병원의 임상경험을 곁들여 이해를 도와 주는 열정을 하여 주셨다. 체내 면역계가 여러 면역요법에 의해 암세포 또는 종양조직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변할 수 있음을 보여 주어 추후 암치료에 있어서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 Session은 satellite symposium II로서 한림의대 권용일 선생님의 'Robotic surgery from basic to advanced

application', 고려의대 이낙우 선생님의 'Current concepts in diagnosis and management of adenocarcinoma of the uterine cervix', 분당서울의대 김용범 선생님의 'The critical point in the management of ovarian cancer: platinum resistance'가 이어졌다. Robotic surgery의 실제 수술 장면은 흔히 보기 어려웠던 benign disease에 대한 수술이 있어 Robotic surgery를 좀더 이해할 수 있었고, 아직은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 부러운 느낌이 들었다. 이낙우 선생님은 adenocarcinoma에 대한 current concept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셨으나 실제 접할 수 있는 단일 기관의 증례 수가 많지 않아 경험한 data를 제시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 하셨다. 김용범 교수님은 본인의 실험 data를 제시하여, p300, cyclin E가 chemo-naïve ovarian cancer에서 미래의 platinum resistance의 발현 가능성을 알려 주는 biomarker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셨고, 이러한 platinum resistance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combination therapy, sequential therapy 등의 약을 변형시키는 방법과 장치는 drug resistance reversal therapy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셨다.

이어서 정기 총회에서는 새로운 회장님으로서 포천중문의대 황윤영 교수님께서 추대되었다. 총회는 학회를 사랑하시는 여러 교수님들이 학회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 차이로 격론이 있기도 하였으나 이는 결국 학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리라 믿어졌다. 임기를 마치시는 김경태 회장님과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 드리고 새로 취임하신 황윤영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의 앞길에 늘 행운이 깃드시길 빌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 2009 GOG (Gynecologic Oncology Group) 78th Semi-Annual Meeting **참관기**



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임상강사 김 미 경

Gynecologic Oncology Group의 78차 Semi-Annual Meeting이 2009년 1월 22일부터 2009년 1월 25일까지 캘리포니아의 Orange County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미팅에는 KGOG 회장인 서울의대 강순범 선생님 (이하 호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성균관의대 김병기, 울산의대 김종혁, 김용만, 계명의대 조치흠, 한림의대 권용일, KGOG 사무총장이신 연세의대 김재훈, 원자력의학원 유상영, 인하의대 송은섭, 서울의대 이택상, 정현훈, 울산의대 주원덕, 그리고 KGOG 연구간호사인 김선희 간호사, 김종순 간호사, 서울대병원 연구간호사인 김지연 간호사가 참석하였습니다. 전임의로는 저와 울산의대의 이신화 선생이 참여

할 수 있었습니다.

22일부터 일정이 있었지만, 처음 가보는 GOG meeting이니만큼 첫 날 오전 프로그래부터 들을 요량으로 21일 오전에 LA에 도착하였습니다. 일찍이 GOG meeting이 열리는 Hyatt Regency Orange County에 체크인을 하고 도착 당일에는 일정이 없어서 주위를 배회하기로 하였습니다. 가기 전에는 몰랐는데, 돌아다니다 보니 그 곳이 바로 Anaheim이라고 디즈니랜드 옆동네였습니다. 저녁에는 같은 날 도착한 선생님들과 함께 한국찻집으로 크랩을 먹으러 갑니다. 크랩은 정말 맛있었고, 음주도 같이 즐겼습니다. 같은 술을 마셔도 타국에서 술을 마시면 더 즐겁게 마실 수 있는 것 같

습니다. 그 덕에 돌아오는 차가 굉장히 비좁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돌아왔는지 잘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첫 날은 GOG symposium이 열렸는데, 주제는 'Issues in Gynecologic Cancer Prevention and Survivorship'이었습니다. 이 토픽은 GOG meeting 전반에 걸쳐 계속 강조가 되었고, 향후 trial을 계획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하지는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사실 전날 마신 술기운 때문에 오전에는 거의 듣지 못해 정말 억울했지만, 오후에는 여기까지 왔는데 꼭 들어야겠다는 일념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오전에는 부인암의 prevention 전략, 특히 자궁암, 난소암, 자궁체부암에서의 chemoprevention에 대





한 정리가 있었습니다. Chemoprevention으로 이제까지 연구된 여러 diet들과 phyto-chemicals, 다양한 약제들 뿐만 아니라 physical activity에 대한 내용도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임파부종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내용도 다루어졌습니다. 오후에는 cancer survivorship과 삶의 질에



관한 이슈들을 다루었습니다. Cancer survivorship은 저에게 나름 생소한 토픽이라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암치료의 발전에 따라 생존 기간이 늘어나면서 생존한 암환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들에 대한 건강 증진 및 만성 질환에 대한 예방과 같은 일반적인 관리도 이제는 생각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암환자들을 볼 때 암 자체에 대한 치료에만 초점을 맞춰온 지라 암치료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갖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삶의 질 문제에 대해서도 학회 전반에 걸쳐 강조가 되었는데, symposium에서는 특히 암환자들의 피로감, 인지 능력 저하와 말초신경병증에 대한 정리가 있었습니다. 삶의 질 문제는 완치가 된 환자 뿐만 아니라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재발을 경험한 환자들까지 모두 해당되는 문제로 결국 생존 문제만을 임상연구의 최종 목표로 잡지 말고, 삶의 질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었

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KGOG에서 주도하는 임상 연구에서도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인 23일부터는 본격적인 GOG meeting이 열렸습니다. 이 날은 KGOG meeting이 열리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각 committee 별로 workshop이 23일과 24일 양일에 걸쳐 열렸고, 대부분은 참관할 수 있게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워크숍은 committee 멤버들이 round table에 둘러앉아 토론하고 참관하는 사람들은 뒤에 앉아서 멤버들이 토론하는 내용을 경청하고 가끔씩 토론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매우 활기차고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가 부러웠습니다. 워크숍의 진행은 종료된 연구에 대한 리뷰와 현재 진행 중인 연구들의 진행 상황 및 중간 분석, 그리고 새로 제안된 프로토콜들에 대한 토론 및 표결 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각 committee 별로 10~30개 정도의 프로토콜들이 새로 제안이 되었고, 표결을 거쳐 반

수 정도가 진행하도록 채택되었습니다. Developmental Therapeutics Workshop에 김용만 교수님, Gynecologic Oncology Workshop에 김종혁 교수님이 committee 멤버로서 round table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니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corpus workshop에 주로 참관해서 아쉽게도 cervical committee

에서 유상영 선생님이 PI로 있는 프로토콜 (CVM0801/KGOG1008)에 대한 논의는 듣지 못했습니다. Corpus workshop에서는 우선 ASTEC trial에 대한 리뷰로 시작했습니다. ASTEC trial은 비록 GOG에서 시행한 trial은 아니지만 자궁체부암에서 임파선절제술의 효용에 대한 중요한 연구로 GOG에서도 이와 비슷한 연구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GOG의 관점에서 ASTEC trial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는데, 역시 임파선절제군에서 임파선 개수가 너무 적어 불충분한 임파선절제가 아니었냐는 비판을 했습니다. 이 committee에서 뿐만 아니라 Developmental therapeutics workshop의 좌장을 맡았던 Carol Aghajanian이란 젊은 여성이 매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모습을 보고 인상깊었는데, 한편으로는 제 자신에 대한 자성을 하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23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KGOG meeting이 열렸고, 저도 토론자로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일본의 JGOG가 저희보다 훨씬 먼저 GOG에 참석했다고는 하지만 JGOG meeting이 없는 것을 보고, 저희 선생님들이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KGOG meeting에서는 개발 단계이거나 종료된 KGOG 프로토콜에 대한 소개 및 HPV vaccine과 난소암에서의 유지요법에 대한 리뷰 등 열 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GOG에서 Disaia, Copeland, Trimble, Bookman, Koh 등이 참석해서 각 발표에 대해 comment를 해줬는데, 나름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자궁경부암의 screening 모델에 대한 부분과 난소암에서의 유지 요법에 대해 comment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23일에 이어서 workshop들이 열렸고, 이 날에는 general assembly가 열렸습니다. General assembly에서는 현재까지 GOG meeting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과 중요 trial에 등록된 환자수가 소개되었습니다. 참여 기관에 KGOG 소속 기관들이 많이 보여 또다시 기뻐했습니다. 24일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귀국을 하셔서, 저녁은 유상영 선생님이 연구간호사들과 같이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사주셨습니다. 거의 한 시간정도 기다렸지만, 정말 맛있고 양도 많아서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KGOG 연구간호사인 김선희, 김준순 간호사와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음 날 돌아오는 비행기를 탔을 때는 왠지 모르게 뿌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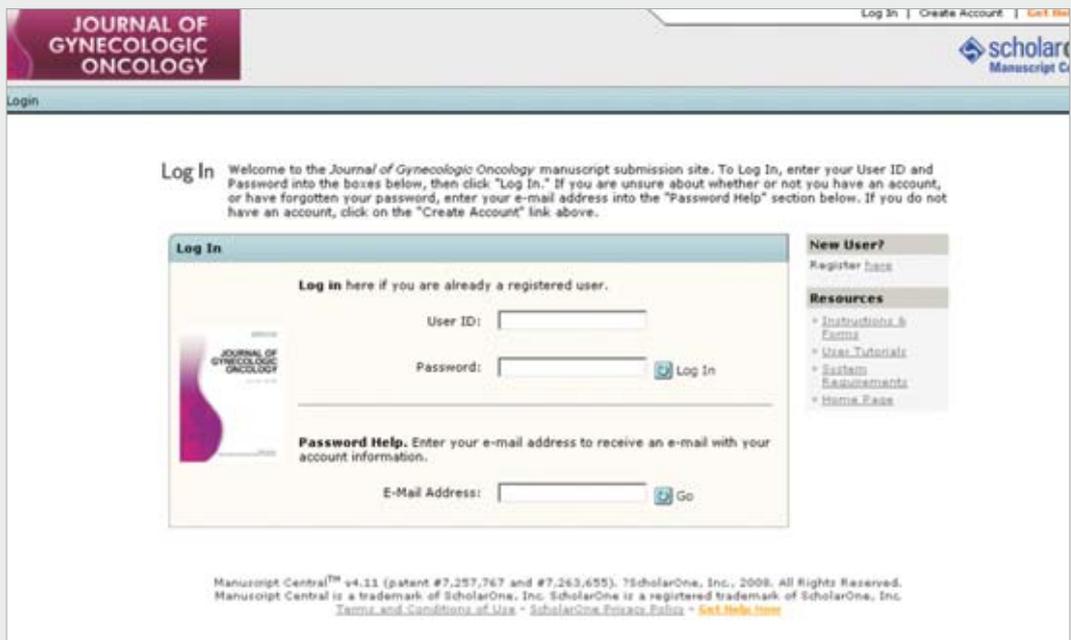
이번 GOG meeting에 참여할 기회를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Committee 멤버가 아니면서 참관할 기회를 가진 것은 저에게는 나름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 임상연구의 프로토콜을 어떤 형식으로 제안하고 채택되는지 그 과정을 볼 수 있어서 임상연구에 대한 개념을 다시 세우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실 전임의 입장에서는 임상연구가 잡일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GOG meeting을 참관하면서 저도 의미있는 연구에 참여한다는 것이 좋은 경험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미팅에서 어리숙한 저를 잘 챙겨주셨던 많은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GOG meeting의 전반을 잘 파악했는지 걱정스럽지만 이제까지 읽어주신 여러분들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Online Submission

# JGO - Journal of Gynecologic Oncology

<http://mc.manuscriptcentral.com/jgo>

You can now submit your paper online to JGO-Journal of Gynecologic Oncology via the online submission and editorial system from Manuscript Central. It is fast, efficient and provides step-by-step instructions on how to submit your paper.



# Society of Gynecologic Oncologists (SGO) the 40th Annual Meeting on Women's Cancer **참관기**



서울의대 산부인과학교실 **김희승** 서울의대 산부인과학교실 **박주희**

금년에 Society of Gynecologic Oncologists (SGO)에서 주관하는 40th Annual Meeting on Women's Cancer는 미국의 Texas 주의 San Antonio에서 2009년 2월 5일부터 4일간 개최되었다. 총 69개 연제가 plenary 및 focused plenary session에서 구연 발표되었고, poster로는 298개의 초록이 발표되었다. 물론 예년과 다름없이 하루 전 교육 과정으로 special symposium이 있었고, 직접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후배인 박주희 전공의의 참여 후기를 몇 글자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 Surgical Postgraduate 1-A/B:

### *Strategies and Techniques for Resection of Upper Abdominal Disease in Patients with Advanced Gynecologic Malignancies*

SGO 학회가 시작되기 하루 전날 2009년 2월 4일 Surgical Postgraduate program이 열렸는데,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는 *Strategies and Techniques for Resection of Upper Abdominal Disease in Patients with Advanced Gynecologic Malignancies*에 대한 Didactic & Hands-on Lab이 있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advanced gynecologic malignancies에서 resection of upper abdominal disease를 위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surgical

strategies를 알려주는 데 있었다. 5명의 speaker가 각각 didactic session을 진행하였고, 이후 바로 laboratory session에서 cadaver 실습할 수 있었다.

먼저 Memorial Cancer Center의 thoracic surgery전문의인 Bernie Park이 부인종양학 분야에서 Video-assisted thoracic surgery (VATS)를 이용한 intra-thoracic cytoreduction에 대하여 강연을 하였다. 기존에 발표된 논문부터 anatomy, 기구종류 및 다양한 적응증에 대하여 동영상과 사진들을 이용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였는데, 강의를 듣고 난 후 느낀 점은 VATS는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 보다 더욱 extensive하게 lung 및 pleura의 metastatic lesion을 debulking 할 수 있는 유용한 술기였다는 것이었다. 다음은 Cleveland hospital의 Robert DeBernardo가 splenectomy의 ant. & post. approach 및 distal pancreatectomy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어서 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의 Dennis Chi가 Diaphragm peritonectomy, full thickness diaphragm resection & liver mobilization에 대한 강의를 하였는데, 이번 SGO에서 그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ovarian carcinoma IIIc, IV에서 extensive upper abdominal cytoreduction의 outcome이 6년간 141 cases에서 residual <1 cm :127 (90%), Major complication: 41 (29%), Mortality: 2 (1.4%), Median

overall survival: 57 months이었고, partial hepatectomy: 18 (13%), resection of porta hepatis tumor: 14 (10%)가 포함되었다. 뒤이어 동영상 강의에서는 diaphragm peritonectomy시 retro-hepatic IVC까지 포함하여 liver mobilization을 시행함으로써, kidney, adrenal gland까지 확인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다음은 MD Anderson International Spain의 Luis Chiva가 Extensive retroperitoneal nodal dissection에 대하여, 그 다음은 St. Luke's hospital의 David Silver의 subtotal & total colectomy with J-Pouch에 대한 동영상 및 강의가 이어졌다. 강의 중에는 평소 병원에서 시행하던 technique도 있었지만, 처음 보는 술기도 있어서 새로웠으며, 그 후 바로 lab에서 9명 전문의들 지도 하에 cadaver한구 당 2~3명씩 조를 이루어 오전에 보았던 동영상을 바로 실습해 볼 수 있었다. 실습시간은 1시간 정도로 좀 짧은 느낌이 있었는데, 굉장히 fresh한 cadaver로 그 시간 동안 LN dissection을 제외한 upper abdomen dissection을 해볼 수 있었다. 국립 암센터의 박상운 선생님도 9명의 교수님 중 한 분이셨는데, 여러 번 감독을 해보셔서 그 쪽 팀은 빨리 진행하여 나중에 nodal dissection까지 하였다고 들었다. 가격은 US \$1000로 부담스럽긴 하였으나, 전문의들의 술기 및 최신 지견을 직

### Time Table

Time	Presentation Title	Speaker
8:00 a.m. – 8:15 a.m.	The Role of Video Assisted Thoracoscopic Surgery (VATS) and Intrathoracic Cytoreduction	Bernie Park, MD
8:20 a.m. – 8:35 a.m.	Splenectomy and Distal Pancreatectomy	Robert DeBernardo, MD
8:40 a.m. – 8:55 a.m.	Diaphragm Peritonectomy and Resection	Dennis Chi, MD
9:00 a.m. – 9:15 a.m.	Liver Resection and Porta Hepatis Dissection	Michael D'Angelica, MD
9:15 a.m. – 9:25 a.m.	BREAK	
9:25 a.m. – 9:40 a.m.	Extensive Retroperitoneal Nodal Dissection	Luis Chiva, MD
9:45 a.m. – 10:00 a.m.	Total Colectomy with J-Pouch	David Silver, MD
10:00 a.m. – 10:25 a.m.	Expert Panel Discussion	William Hoskins, MD Beth Y. Karlan, MD Karl Podratz, MD Cliff Wheeler, MD
10:25 a.m. - 10:30 a.m.	BREAK	

### Dennis Chi의 didactic session

**Outcomes After Extensive Upper Abdominal Cytoreduction for Stage IIIC and IV Ovarian Carcinoma**

- Study period: 1/01 – 12/06, 141 cases
- Cytoreductive outcome:
  - Residual < 1 cm: 127 (90%)
  - Residual > 1 cm: 14 (10%)
- Major complications: 41 (29%)
- Mortality: 2 (1.4%)
- Median Overall Survival: 57 months

*Chi DS et al. SGO 2009*

**Extensive Upper Abdominal Surgical Procedures (N=141)**

- Diaphragm surgery: 120 (86%)
  - Peritonectomy: 101 (72%)
  - Full thickness resection: 19 (14%)
- Splenectomy: 45 (32%)
- Partial hepatectomy: 18 (13%)
- Distal pancreatectomy: 16 (11%)
- Cholecystectomy: 15 (11%)
- Resection porta hepatis tumor: 14 (10%)

*Chi DS et al. SGO 2009*

접 보고 들을 수 있었고, 바로 cadaver 실습을 할 수 있어서 보람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얘기로만 들던 Denis Chi 강의를 듣고, 수술장면을 보고, 인사를 하다니.. (한국말은 '안녕하세요'만 할 수 있어서 아쉬웠다.) 그러나 제일 놀랐던 것은 cadaver torso와 그 신선도에 비

해서 엄청난 냄새였다. 몸통만 있는 cadaver라니!

이어서 본 학회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작년에는 focused plenary session에서 국내의 연구 결과가 3개 발표되는데 힘입어 금년에는 서울아산병원 남주현 선생

님, 경북대병원 이윤순 선생님, 이대목동병원 주웅 선생님의 구연발표가 있었다. 특히 남주현 선생님은 국내에서 최초로 plenary session에서 발표하시는 쾌거를 이루어 향후 국내의 연구가 외국 부인종양학회에서 우수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셨다.

부인종양학회 중 가장 영향력 있는 학회답게 좋은 내용의 연구결과가 많이 발표되었고, 비록 85%에 달하는 발표자의 국적이 미국이었으나 국내에서도 30여명의 의료진들이 참석하여 SGO 학회에서의 발표는 물론 참석률에서도 호평을 받는 입지를 확보하였다. 또한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 있는 session인 tumor board에서는 high-risk early stage endometrial cancer의 adjuvant treatment에 대한 discussion이 있었고, advanced-stage ovarian cancer의 치료에 대해서는 neoadjuvant chemotherapy와 primary surgery에 대한 randomized controlled trial의 European Organisation for Research and Treatment of Cancer (EORTC) 결과가 작년 International Gynecologic Cancer Society (IGCS)의 학회에 이어 다시 한번 발표되어 작년 IGCS에 참석하지 못하여 내내 갖고 있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



Plenary session에서 발표하시는 서울아산병원 남주현 선생님



Focused-plenary session에서 발표하시는 이대목동병원 주웅 선생님



SGO member's party (왼쪽부터 국립암센터 박상윤 선생님, 경희대병원 이종민 선생님, 경희대병원 기경도 선생님)



로데오 경기 모습



San Antonio의 명지인 River Walk



학회장 전경

매번 SGO 학회에서는 저녁에 event를 포함한 dinner party를 여는데, 금번에는 Cowboys Dance hall에서 서부 영화에서 볼 수 있는 rodeo gear 및 cowboy boots를 신은 점원들이 참석한 학회 사람들을 맞이하는 SGO member's party가 2월 5일에 있었다. 국내의 많은 선생님들과 이 저녁 파티에 참여하여 맥주와 멕시칸 스타일의 고기를 맘껏 즐길 수 있었고, 식사 후에는 로데오 경기대회가 열려 눈 앞에서 그 짜릿한 순간을 즐기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2년 연속 SGO meeting을 참가해 본 경험으로 본 학회의 느낌을 설명해보자면, 분명 부인종양학 분야에서 가장 많은 연구의 결과가 발표되고, 전세계의 영향력 있는 전문의들이 참여하는 meeting인 것은 틀림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작년과 비교하였을 때, 전향적 무작위 연구 결과에 대한 내용이 적었고, 대신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었던 부인암(예, gestational trophoblastic disease), quality of life, postoperative care 및 basic research에 대한 내용이 부쩍 늘었다는 점이 작년과의 큰 차이였다. 이는 부인암분야의 연구의 전세계적인 흐름에 변화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은 아닐지 곰곰히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국내의 많은 부인종양을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이 공감하시는 것처럼, 공식적인 저녁 파티로는 과음에 익숙한 한국 사람들에게겐 좀 부족한 것이 현실인지라, 종종 저녁 식사 후 뜻있는(?) 국내의 애주가 선생님들과 함께 조출한 파티를 San Antonio의 명지인 River Walk에서 종종 열어 국내에서

갖지 못한 소중한 만남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부인종양을 전공하는 의사라면 한번쯤은 꼭 와보고 싶은 국제학회인 SGO! 더 이상 국내 의료진들에게는 다가가기 어렵거나, 국내 의료 수준보다 월등히 뛰어나다는 선입견으로 참가할 이유가 더 이상은 없는 듯하다. 이미 국내의 많은 선생님들이 국제적으로 국내 의료 수준의 위상을 높이셨기 때문에 참여를 아직 못하거나, 기회가 적었던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는 참여하여 마음껏 즐기고 참여하라는 것이다.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 학회도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학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큰 기대를 꿈꾸어 본다.

## 부인종양 학회지에 의무적으로 논문을 게재해야 하는 초록 제출자 명단

	교신저자	교신저자 소속	제 목	지원	지원학술대회	마감일
1	박정열	국립암센터	Risk factors for persistence or recurrence of cervical intraepithelial neoplasia after conization of cervix.	우수논문상(포스터)	21차 학술대회	2008년 4월
2	김영태	연세의대	Robotic Radical Hysterectomy with Pelvic Lymphadenectomy for Cervical Carcinoma	우수논문상(구연)	23차 학술대회	2009년 4월
3	이재형	동국의대	The evaluation of viral load and physical state of HPV 16 as a predictive and diagnostic marker for cervical intraepithelial neoplasia and carcinoma of cervix	우수논문상(구연)	23차 학술대회	2009년 4월
4	강희석	성균관의대	Outcome and Reproductive Function after Cumulative High-dose Combination Chemotherapy with Bleomycin, Etoposide and Cisplatin (BEP) for Patients with Ovarian Endodermal Sinus Tumors	우수논문상(구연)	23차 학술대회	2009년 4월
5	김대연	울산의대	Laparoscopic feasibility of nerve-sparing radical hysterectomy and trachelectomy in patients with cervical cancer: preliminary results and efforts to increase radicality	우수논문상(구연)	23차 학술대회	2009년 4월
6	남은지	연세의대	Diagnosis and Staging of Ovarian Cancer : Comparative Values of PET/CT, Doppler US, CT, and MRI Correlated with Histopathologic Analysis	우수논문상(구연)	23차 학술대회	2009년 4월
7	배재만	국립암센터	The role of secondary cytoreductive surgery for patients with recurrent epithelial ovarian cancer	우수논문상(포스터)	23차 학술대회	2009년 4월
8	이미범	연세의대	Gene Expression Profile of Epithelial Ovarian Cancer	우수논문상(포스터)	23차 학술대회	2009년 4월
9	기경도	경희의대	Expression and Mutational Analysis of Smad7 in Human Cervical Cancers	우수논문상(포스터)	23차 학술대회	2009년 4월

## 우수논문상, 학회지 공로상 수상 내역

### 우수논문상

본 학회 공식 저널지인 Journal of Gynecologic Oncology에 우수한 논문을 투고하여 우수논문상을 시상하였습니다. 시상은 11월 28일(금) 제14차 심포지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자	저자 소속	제 목
1	이유경	서울의대	Value of pelvic examination and imaging modality for the evaluation of tumor size in cervical cancer
2	장석준	아주의대	Does pretreatment HPV viral load correlate with prognosis in patients with early stage cervical carcinoma?
3	기경도	경희의대	Role of 5'-CpG island hypermethylation of the FHIT gene in cervical carcinoma
4	장기홍	아주의대	Clinical characteristics of struma ovarii
5	김승철	이화대의대	Tenascin-X and leukemia inhibitory factor receptor are down-regulated in leiomyoma compared with normal myometrium
6	김민정	서울의대	Uterine corpus involvement as well as histologic type is an independent predictor of ovarian metastasis in uterine cervical cancer
7	유승철	아주의대	Significance of postoperative CA-125 decline after cytoreductive surgery in stage IIIc/IV ovarian cancer
8	Ke Long Jin	울산의대	Expression profile of histone deacetylases 1, 2 and 3 in ovarian cancer tissues
9	김미경	서울의대	Validation of a nomogram for predicting outcome of vulvar cancer patients, primarily treated by surgery, in Korean population: multicenter retrospective study through Korean Gynecologic Oncology Group (KGOG-1010)

### 학회지 공로상

"Journal of Gynecologic Oncology"의 논문을 SCI 잡지 게재 논문에 인용해 주신 회원분들을 선정하여 "학회지 공로상"을 시상하였습니다.

	저자	저자 소속	제 목
1	Hee Seung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Matched-case comparison for the role of surgery in FIGO stage Ib1-IIa squamous cell carcinoma of cervix and suspicious para-aortic lymph node metastasis
2	Noh-Hyun Park	Seoul National University	Significance of preoperative serum CA-125 levels in the prediction of lymph node metastasis in epithelial ovarian cancer
3	Myong Cheol Lim	National Cancer Center	Hyperthermic Intraperitoneal Chemotherapy Following Extensive Cytoreductive Surgery in Patients with Primary Advanced Epithelial Ovarian Cancer: Interim Analysis of a Phase II Study

# 37th Global Congress of Minimally Invasive Gynecology (AAGL) **참관기**

Las Vegas, Nevada USA Oct 28 ~ Nov 1, 2008



성균관의대 산부인과 배 덕 수

산부인과 영역 중 최소 침습수술과 관련한 내시경 학회이면서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인 AAGL이 37회를 맞이하였다. 이번 2008년도 AAGL은 미국 네바다주의 가장 큰 도시이자 최고의 관광과 도박의 도시인 Las Vegas에서 열렸다. Las Vegas란 도시가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불야성의 관광지로 유명한 것은 대부분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러한 곳에 소위 공부를 하러 간다는 것이 아이러니컬하게 들릴 수 있겠으나 바꾸어 생각하면 공부와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으니 학회를 위한 최적의 장소가 Las Vegas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천을 떠나 LA에 도착하여 차를 렌트한 후 Vegas로 향했다. 서울의 선선한 가을 날씨에 적응이 되었던 필자는 사막휴양지인 Vegas로 향하는 내내 더운 날씨로 고생을 하였지만 LA에서 차를 몰고 5시간 남짓 달렸을까 어두컴컴한 저녁 하늘과 끝이 없을 것 같은 지루한 사막의 지평선 저 너머에 오색찬란한 불빛이 필자를 반기는 것이 아닌가! Las Vegas에 도착한 것이다. 10월 29일 저녁무렵에 Las Vegas에 도착한 우리 일행은 학회가 열리는 Paris Las Vegas Hotel에 숙소를 정하고 짐을 풀었다. 여담이지만 Las Vegas의 호텔들은 그 규모도 규모지만 각각 호텔마다 그 테마가 있다. 피라미드를 주제로 한 Luxor Hotel, 미국 뉴욕의 건축물들을 축소해서 옮긴 New York New York Hotel 등이 대표적인 것이며

필자가 묵었던 호텔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파리를 대표하는 에펠 탑을 축소해서 그대로 옮겨놓았다. 짐을 푼 뒤 학회에 참가한 한국인들과의 저녁 식사 모임이 있는 한식집으로 이동하였다 (일명, Korean Night). 남주현 선생님, 김동호 선생님, 김상운 선생님을 비롯하여, 이운순, 김종혁, 임경택 교수 등 이미 많은 선생님들께서 자리하고 계셨다. 물론 국내에서도 종종 만나는 얼굴들이지만, 먼 이국 땅에서 이렇게 회포를 푸니 열심히 돌아다니는 술잔만큼이나 흥이 나고 흐뭇한 자리였다.

10월 30, 31일은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6개의 방에서 각각 주제에 따른 plenary sessions, expert panels, surgical tutorials, video sessions 그리고 open communications 등으로 구성되었고 마지막 날인 11월 1일 토요일은 7시부터 시작하여 상기 프로그램 등과 함께 telesurgery session이 추가되었다. 학회 참관 첫째 날은 여독과 전날 Korean Night의 숙취 때문에 조금 피곤하였지만 첫날부터 늦을 순 없는 일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 학회장으로 향하였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robotic surgery의 tutorial session에서 동영상 강의를 하면서 직접 3D를 볼 수 있는 안경을 나누어 주어 모두에게 직접 robotic surgery를 하면서 볼 수 있는 영상을 보여준 것이다. 당시 robotic surgery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하듯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린 것으로 기억된다. 뻑뻑한 하루 일



정이 끝난 뒤 필자를 포함한 일행은 Las Vegas의 유명한 쇼 중의 하나인 'Le Reve' 쇼를 보기 위해 서둘러 저녁을 먹은 뒤 Wynn 호텔로 향했다. 쇼는 몽환적인 분위기 속에서 많은 배우들이 공중에서 물속으로 떨어지는 동작들도 구성되었다. 처음에는 신선했지만, 반복되는 동작들과 특별한 스토리가 없어서인지 공연내내 꿈꾸는 듯한 느낌을 피할 수 없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프랑스어인 'Le Reve'는 꿈이라는 뜻이란다. 역시 쇼의 내용에 걸맞은 이름이었다.

다음날 각각의 기관 내지는 병원에서 나와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는 plenary session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 역시 robotic surgery에 대한 연구가 대세였다. 즉 기존의 복강경으로 하던 부인과 수술들의 대부분을 robotic surgery로 함으로서 수술시간의 단축, 재원일수의 단축, 수술 후 통증 경감 등 많은 장점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었다. 종합해 보면 굳이 복강경 보다 좋은 수술인 robotic surgery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복강경 수술과 robotic surgery의 비용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미국, 유럽등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에서 robotic surgery를 한다는 것은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특히 근종을 포함한 양성질환에서의 robotic surgery는 비용문제로 더더욱 일반화되기 힘든 현실이어서 조금 씩씩한 기분이 들었다. 우리 나라 선생님들의 surgical technique 이라면 보다 짧은 시일내에 로봇수술의 expert가 될 수 있을텐데...

이날 'Side-by-side sacral colpopexy telesurgeries' session이 특히 기억에 남는데, 복강경과 DaVinci로 같은 수술을 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비교하며 장단점을 느껴보는 것이었다. 그런데, 복강경 수술을 했던 젊은 여의사(Dr. Ginger Cathey)의 suture 및 extracorporeal tie의 속도와 깔끔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복강경도 숙련도에 따라 로봇 수술 이상으로 완벽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session이라 생각했다.

학회 이틀째 저녁에는 2008년 가을 대구에서 개최되었던 APAGE 학회에 초청연자로 왔던 Nick Spirotos가 필자를 포함한 한국에서 온 일행을 저녁식사에 초청하였다. 저녁 메뉴는 평소 필자가 즐겨먹는(?) 이탈리아 음식이었다. 레스토랑이 시저스 팰리스 호텔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여기를 찾아가면서 명품상점들로 즐비한 쇼핑거리도 덩달아 구경하게 되었다. Dr. Spirotos는 네바다 주 암센터에서 특히 laparoscopic radical hysterectomy를 많이 하는 의사인데, 그리스 출신이라 그런지 정서가 우리 한국인들과 통하는 점이 많아 보였다. 반갑게 께께(?)거리며 우리 한국인 일행을 맞아주었고, 헤어질 때도 아쉬움이 남았는지 골프라운드를 함께 하자 제안도 하였지만, 일정상 다음의 인연을 기약할 수 밖에 없었다.

학회 마지막 날은 오전으로 끝이 났고 오후는 자유시간이 되었다. 바쁜 일정으로 심신이 힘들었던 터라 호텔에서 잠시 쉬 뒤 이른 저녁으로 일행들과 함께 한식 집으로 향하였다. 며칠간 줄곧 함께 한 병원 후배, 제자들과 식사와 더불어 가벼운 술을 한잔하며 정을 나누면서 여행과 학회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버렸다. 숙소로 돌아오는 저녁 마침 halloween day를 맞이한 Las Vegas는 더욱 활기를 띤 거리도 변해있었다. 유령, 슈퍼맨, 백설공주 등 수많은 유명인사(?)들이 거리를 활보하면서 Vegas를 더욱 아름답게 수놓았다. 역시 Las Vegas는 학회 장소로 최적이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다. 각각양색의 호텔, 결코 여행객을 무료하지 놔두지 않는 도박장, 북적이는 사람들, 시간을 잊게 만드는 거리의 조명들...

2009 AAGL 학회는 올랜도에서 개최된다고 한다. 새로운 술기, 기구 및 장비들을 한꺼번에 모두 볼 수 있고, 언어 장벽(?)이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는 AAGL 학회는 내시경 수술에 관심있는 의사들에게 큰 만족감을 준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필자가 즐겨찾는 학회가 되리라 생각한다.



# 13th World Congress of Cervical Pathology and Colposcopy

## 제13차 세계 자궁경부병리 및 콜포스코피학회 참관기



연세의대 산부인과 김 영 태

13th World Congress of Cervical Pathology & Colposcopy가 2008년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에서 개최되었다. 멕시코 칸쿤 대회에 이어 3년만에 열리는 이번 제 13차 세계 자궁경부병리 및 콜포스코피학회는 New Zealand Society of Cervical Pathology and Colposcopy가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ervical Pathology and Colposcopy (IFCPC)의 주관 하에 적극적인 학술준비활동에 힘입어 전세계에서 3000여명이 참가하여 부인암영역 특히 자궁경부암에 대한 활발한 학술활동이 이루어졌다. 국내에서도 관동의대 김재욱 교수님, 고대의대 이규완 교수님, 가톨릭의대 박태철 교수님, 경희의대 이종민 교수님, 전남의대 김석모 교수님 등을 비롯하여 30여명을 웃도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였다.

호주의 남동쪽에 위치한 뉴질랜드는 푸른 초원을 뒤흔드는 양 떼들로 대표되는 천연자연의 혜택을 누리는 친환경적인 나라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평화롭게 보이는 그 초원의 90퍼센트가 조상들이 험준한 산맥과 산야에 자생하고 있던 많은 야생나뭇을 자르고 깎아낸 후 인공적으로 풀을 심어 초원을 만들어 오늘날의 푸른 뉴질랜드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탐과 수고에 큰 감명을 받았다. 자연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듯, 국제공항에서 특별하게 느껴진 점은 농림부의 식품검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까다롭고 엄격하게 진행되었던 장면이었다. 모든 음식물의 반입이 어찌나 철저하던지 화장품까지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오클랜드의 식민지의 잔재가 남은 영국풍 도시들은 높은 문화 수준을 보여 주기에 충분하고도 남우리만큼 잘 정리되어 있었고 원주민 마오리족의 공예술은 여기에 독특한 색채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여유로움과 친절함이 몸에 밴 인정 많은 뉴질랜드 사람들이 무척 따뜻하게 느껴졌다.

학술대회 장소인 오클랜드 컨벤션 센터는 오클랜드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주위에는 아름다운 분수대가 자리하고 있었고 현대적 건물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Opening ceremony에 이어 진행된 학회는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질확대경에 관한 임상적인 면과 최근에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자생물학과 자궁경부암에 대한 연구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뉴질랜드 부인암학회주관으로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자궁경부 미세침윤암에 대한 진단과 치료분야에서의 여러나라 국가들의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된 것도 특기할 만한 것이라고 하겠다. 질확대경을 컴퓨터와 접목시켜 좀더 효과적인 검진체계를 세우려는 새로운 시도가 많은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침윤암발생에 있어 인유두종바이러스에 대한 다양

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가백신사업에서 자궁암 백신의 접종 및 그 결과에 대해서 완전예 방될 수 있다는 고무적인 발표도 있었다. 스페인 교수 Xavier Bosch의 "Epidemiology and Global Burden of HPV Associated Diseases"발표가 특히 인상적이었다. 또 영국의 유명한 학자인 Margaret Stanley가 "Immunology for the Gynaecologist"발표를 통해서 그동안 면역학에 다소 관심이 적었던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신선한 도전을 주었다고 생각이 되었다.

이번 학회는 학술적인 성과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Member of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IFCPC로 선출되어 Delegate of Korean Society of Gynecologic Oncology and Colposcopy자격으로 참석하게 되어 더욱 뜻깊은 학회였다. 70여명이 모인 총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주요안건이 2011년 브라질 학회에 이어 2014년 IFCPC 학회를 유치할 장소를 정하는 것이었다. 영국과 체코, 벨기에 등이 치열한 유치전을 벌였었는데 결국 영국 런던이 선정되었다. 자기 나라에 유치하고자 열정적으로 애쓰는 각 나라의 유치 위원들을 보니 6년 전 한국에서는 한창 월드컵이 진행되었던 2002년에 스페인 학회 총회에서 2008년 학회를 한국에 유치하고자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 학회의 많은 회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많은 노력과 준비를 했던 그 때가 떠올랐다. 그때 3차례의 접전 끝에 아깝게 자리를 내어주었던 곳이 바로 금년 참석하고 돌아온 뉴질랜드였으니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로웠고 뉴질랜드 학회의 학회 진행이라던지 행사 준비 등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다. 한국의 학회 역량이 다른 나라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다.



13차 세계 자궁경부병리 및 콜포스코피학회장에서 Dr. Staff과 함께 찍은 기념촬영 (필자는 왼쪽 첫 번째인)

# Harald zur Hausen 교수의 노벨의학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가톨릭대 산부인과 김 찬 주

Sweden의 Karolinska 연구소는 2008년 10월 6일 자궁 경부암을 일으키는 HPV (Human Papilloma Virus)를 발견한 독일암연구소(German Cancer Research Center, Deutsches Krebsforschungszentrum, DKFZ)의 Harald zur Hausen 교수를 '2008 노벨의학상' 수상자로 공동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Zur Hausen 교수는 필자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유학을 했던 Heidelberg에 위치한 DKFZ의 Scientific Director를 지냈던 분으로 이 소식을 들으며 여러 가지 그 분의 모습이 떠올라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Zur Hausen 교수는 oncogenic HPV가 전세계 2위의 여성암인 자궁 경부암을 발생시킨다는 사실과 오랜 기간 연구를 통하여 여러 가지 HPV아형 중에서 1983년에 암을 일으키는 HPV 16아형을 발견하였고, 1984년에 자궁 경부암 조직에서 HPV16, 18을 "Cloning" 하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HPV 16,18 아형은 자궁 경부암의 70%에서 발견이 되며, 최근에는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자궁 경부암의 원인인 HPV 감염에 대한 예방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HPV 치료 백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는 Lutz Gissmann 교수의 실험실에서 있었으며, 이 분은 zur Hausen교수가 키운 여러 명의 수제자 중 한 명입니다.

zur Hausen교수는 1936년 독일의 Gelsenkirchen에서 태어나

의학 공부를 하였으며, 박사 학위를 받은 뒤 Düsseldorf 대학의 부속 미생물 연구소(Medical Microbiology)의 Virus Laboratories에서 연구를 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Philadelphia의 아동병원 바이러스 연구소(Virus Laboratories of the Children's Hospital)에서 연구한 뒤, 1969년부터 1972년까지 Würzburg 대학의 교수를 지냈다. 1972년 Erlangen-Nuremberg 대학의 교수 및 학과장이 되었으며, 1977년에 Freiburg 대학의 바이러스학과장이 되었다. 1983년부터 2003년까지 Heidelberg의 German Cancer Research Center (DKFZ)에서 소장 겸 과학 분과장(Director of Scientific Member of the Management Board)을 지냈다. 이 기간 동안 DKFZ은 많은 대학 병원들과 관계를 맺으며, 기초 연구의 지식이 임상 연구에 유입이 될 수 있는 있도록 임상 연계 system을 구축하였다. 현재 그는 2003년 이후에도 DKFZ의 명예교수(Emeritus Professor)로 재직하고 있다. Harald zur Hausen 교수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이미 수 많은 상들 - 2006년 Prince Mahidol Award와 2007년 German Cancer Aid Priz, 2008년 AACR (미국 암학회)상등—을 받아 왔습니다. 또한 여러 전문 저널의 편집위원을 맡고 있으며, 현재 International Journal of Cancer의 편집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2008년 5월1일 한국에 오신 Harald zur Hausen 교수와 필자





Harald zur Hausen 교수가 계시는 독일 Heidelberg 내의 DKFZ, ATV 건물

그는 2008년 5월 대한 의사협회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나의 모든 연구 인생을 HPV 연구에 쏟아 왔습니다. 그 길은 매우 기나긴 길이였지만 나는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의 동료 중 일부는 내가 전 인생에 걸쳐서 이렇게 한가지만 한 것에 대하여 우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만성병은 과학적인

면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아름다운 Heidelberg시와 DKFZ의 여러 건물 중 HPV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어 있던 현대식 “ATV (Angewandte Tumorstrologie)” 건물 1층에 나타나시던 zur Hausen 교수를 회상하며, 다시 한번 Nobel 의학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실험실 동료와 즐거운 한때를 보내던 필자의 모습



Heidelberg 네카 강변의 필자

# APAGE (The Asia-Pacific Association for Gynecologic Endoscopy and Minimal Invasive Therapy) 참관기



계명대 산부인과 조 치 흠

APAGE 제 9차 학회가 2008년 10월 9~11일에 걸쳐 한국에 또한 제가 거주하는 대구에서 개최되었다. 항상 국제학회를 하면 서울에서 하는데 이번에는 대구에서 학회를 하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기쁜 마음으로 학회에 참석하였으며, 또한 국제적으로도 대구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무척 기다려지는 마음으로 학회를 참석하였다. 이 학회는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부인과 내시경 수술에 관계되는 학회로 이번에는 남주현 교수님이 이번 학회의 회장으로 모든 주관을 우리나라에서 하게 되었다. 아시아 학회에는 참석인원이 많아야 하는데 이번에는 외국에서 150명 이상의 참석이 되어 아주 성황리에 시작되었다.

학회 첫째 날인 10월 9일에는 Spirtos 교수의 single port laparoscopy 강의가 눈에 띄었으며, 향후에는 one port surgery의 시대가 올 것으로 기대가 되었다. 오전 심포지움의 두 번째는 pelvic organ prolapse의 처치에 대해 호주의 Wong 교수와 우리나라의 유은희 교수의 강의를 들었다. 점심시간에 이어진 심포지움에서는 필자가 부인과 수술에서의 Force triad의 역할에 대해서 강의와 소개를 하였다. 오전에 모인 참석자의 면면을 보니 외국에서 반 정도의 참석자가 있어 학회가 성공리에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후의 plenary session과 free communication이 있었

으며, 흥미로운 토픽은 vaginismus 때 Botox의 사용에 관한 싱가포르 연자의 발표가 주의를 끌었다. 이외에 부인암에서의 복강경 수술의 발표는 우리나라의 발표가 다른 국가의 발표보다 우위에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첫째 날의 정식 행사의 마지막으로 welcome reception이 있었는데 아시아 모든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APAGE 제 9차 학술대회가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기원하였으며, 주최측에서 마련한 공식 행사나 공연에 모두가 마음껏 즐기며 학회의 첫째날을 마치고 있었다.

학회 둘째 날인 10월 10일에는 홍콩의 Yuen 교수의 부인과 영역에서의 robotic surgery의 역할에 대한 강의와, 이태리의 Maggioni 교수의 radical hysterectomy의 임상경험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이어서 학회 회장인 남주현 교수님의 부인암에서의 복강경 수술에 대한 강의를 들었으며, 오전 마지막 심포지움으로 자궁경부암의 수술에 대해 대만의 Lee 교수와, 난소암에 대해 일본의 Andou 교수의 강의를 들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삼성병원의 배덕수 교수님이 자궁경부암에서의 수술에 대한 정리를 해주셨다. 개인적으로는 Andou 교수의 수술은 저렇게 진행된 난소암에서의 수술도 가능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앞으로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에 대한 도전의식을 갖게 해주었다. 오후에는 전날과 같이 plenary session과 free communication, film session이 있었으며, 이 중 특이할 만한 것은 부인암 수술시 vascular injury 상황에서 대처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소개가 되어 흥미로운 토픽이었다. 또한 복강경 수술의 교육과 인증을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필자의 런천 심포지움



남주현 회장의 개회사



APAGE Board Meeting

서 일본의 전 회장인 TsuTsumi 교수의 강의는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풀어야 할 숙제이며, 누구나 일관된 기본 수술과정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복강경 수술을 시행한다면 수술시 발생하는 합병증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공감하였다. 두 번째날의 마지막 행사는 Congress Banquet을 하였으며, 다양한 공연팀의 볼거리를 한국적

으로 제공하여 주어, 참석한 외국인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공연팀 중 칼로 사과를 배위에서 가르느 장면이 있었는데, 이것이 실수를 해서 다른 곳을 치게 되었는데, 필자는 제일 앞에 있어서 공연자의 배에서 피가 조금 흐르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공연하는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끝까지 공연을 진행하여 기억에 남는다.

학회 마지막 날인 10월 11일에는 많은 참가자들이 빠져나간 상태인지라 학회장이 약간 썰렁한 분위기마저 느껴졌다. Pro & Cons의 논의가 자궁절제술과 pelvic organ prolapse의 분야에서 진행되었고, 마지막으로 시상식을 하였다.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날 행사를 이틀에 모두 끝내고 3일째는 관광의 시간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하고 생각하였다. 무사히 학회를 마치고 나니, 필자는 주최하지는 않았지만 대구에서의 학회가 모두에게 유익하고,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앞으로도 이 보다 더 큰 학회도 한국에서 개최되면 우리나라의 국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하고 생각한다.

24<sup>th</sup> Annual Meeting of  
Korean Society Gynecologic Oncology  
and Colposcopy

##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제24차 학술대회 개최 안내

- 날 짜 : 2009년 4월 17일(금)
- 장 소 : 대구 인터볼고호텔

본 춘계학술대회 사전등록은 홈페이지([www.ksgoc.or.kr](http://www.ksgoc.or.kr))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사전등록기간 : ~4월 3일(금)까지

# 12th Biennial Meeting of International Gynecologic Cancer Society (IGCS) 참관기

Bangkok, Thailand, October 25-28, 2008



울산의대 산부인과 김 용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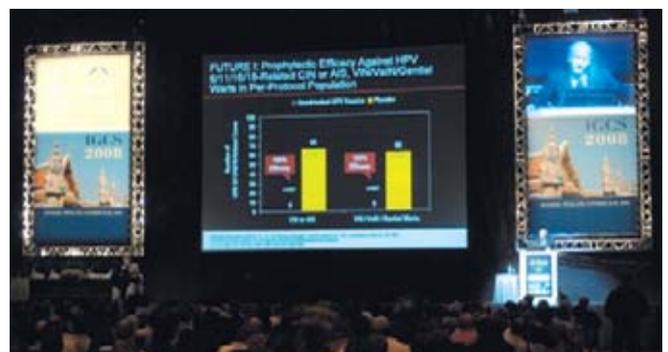
International Gynecologic Cancer Society (IGCS)학회는 SGO (Society of Gynecologic Oncologist)같은 미국주도의 학회에서 벗어나 전세계적으로 모여 2년마다 개최되는 부인 종양학 학회이다. 1985년도 영국 런던에서 부인암에 관심이 있는 모임에서 부인암의 새로운 협회 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었고 같은 해 베를린 FIGO Meeting에서 부인암과 관련이 있는 부인 종양, 방사선 종양, 내과 종양, 병리 분야에 종사하는 20여 개국 49명이 발기인으로 IGCS를 구성하였다. 그 후 IGCS는 2년마다 6회의 학술대회를 전세계에서 개최하여 현재는 62개국 약 1,000여명의 정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전세계적인 분과 학회로 발전하였다. 2002년에는 9차 대회를 우리나라 서울에서 성대하게 개최하여 대한민국 산부인과의 위상을 드높였던 학회이다.

태국에서의 학회는 그 동안 몇 번 참석했지만 한국에서의 날씨가 쌀쌀해질 무렵에 따뜻한 미국의 정취를 느끼게 되어 항상 기대감에 가지게 되는데, 올해에는 태국현지의 정정불안으로 개최직전까지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고, 치안이 안전하지 못할 것 같아 불안하였다. 그렇지만 우려했던 것 보다는 상태가 양호하다는 추측의 연락을 받고 출발하게 되었고 실제 참석하여서도 걱정할 것만큼은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 이번 IGCS에 참석하여 세계각국의 부인암 관련 의사들이 올해에는 어떤 새로운 임상적인 경험과 결과를 발표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방콕 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언제나 장거리의 여행은 피곤한 법이지만 어느 샌가 나도 모르게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유를 즐기게 됐다. 4-5시간 정도 지났을까, 어느새 태국 방콕에 도착했다는 기장의 목소리가 들리고 나만의 시간을 정리한 후 내가 묵을 호텔로 발걸음을 옮겼다. 올 때 마다 느끼는 거지만 동남아의 특이한 냄새와 더운 바람은 예전 어릴 적 폭폭 찢던 여름에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형언할 수 없는 묘한 감정을 갖게 한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태국에서의 첫날은 그렇게 흘러갔다.

다음날 새벽 6시부터 일어나 이른 아침 뷔페에서 식사를 한 후

학회가 열리는 Queen Shirikit National Convention Center로 향했다. 방콕 현지의 아침 출근시간에는 학회장 앞 도로 약 500m를 가는데 1시간 가량 걸린다고 하니 서울의 교통정체는 제법 견딜만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도착 후 등록 후 마침 울산의대 병리와 김규래 교수의 gestational trophoblastic disease에 대한 강의가 있어 부인암전문의로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예상은 했지만 김규래 교수의 명쾌한 강의는 좌중을 압도했고 그 수업을 들으러 온 많은 외국인 의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약 150명 정도의 한국 의사, 그리고 한국인 교수의 강의,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나라 산부인과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병리학 강의가 끝나고 cervical cancer, ovarian cancer의 현재 issue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tumor board가 열리고 Dr. Vergote의 “role of pelvic lymphadenectomy in borderline ovarian tumor”에 관한 강연이나 Canada에서 온 C. Thomas 교수의 “Adjuvant RT in endometrial cancer: when, why and how?”에 관한 강의들은 조금 더 진보된 치료를 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시간이었다. 너무 많은 강의를 들어서였을까, 일과가 다 끝나고 나서는 뿌듯함도 많았지만 멀리 와서인지 피곤함이 밀려왔다.

학회 2일째에는 현재 많이 관심을 갖고 시행되고 있는 nerve sparing radical hysterectomy에 대해 Kyoto 대학의 Shingo



12차 IGCS의 Tumor board 모습

Fuji 교수의 강의가 있었는데 이전에도 강의를 들었던 터라 새로운 없었지만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video session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의 시간을 가져보았다. 또한 main symposium처럼 열렸던 State of art: ovary cancer 에서 extensive upper abdominal surgery in advanced epithelial ovarian cancer 에는 Dr. D.S Chi가 와서 강연을 하기로 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못 오는 바람에 다른 연자가 발표를 하였고, optimal debulking에 대한 부인암 의사들의 extensive surgery 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오후에는 모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개최된 부인암치료용으로 개발중인 신약에 대한 Asia-pacific advisory board meeting에 참석하게 되었다. 학회장에서 떨어진 방콕시내의 한 호텔에서 개최 되었는데 싱가포르, 일본, 인도, 중국, 미국, 영국 등의 국가에서 2명씩 참석하여 Ixabepilone에 대한 향후 부인암 임상시험을 검토, 토론하는 자리였다. 한국에서는 삼성의료원의 김병기 교수와 함께 참석하게 되었는데 늦은 오후부터 시작하여 저녁 10시까지 저녁을 대충 먹어

가며 강의와 열띤 토론이 있었으며, 그 중 미국의 Dr. Don Dizon 의 “Recommendations from US Advisory Board – GOG”이 흥미가 있었다. 특히 Dr. Dizon은 필자와 같이 미국 GOG의 developmental therapeutic committee의 member로 반갑게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하며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아산병원 김영탁 교수의 meet the professor: HPV Vaccination에 대한 강의를 하였고, 그 강의를 들으며 세계적인 국제학회에서 한국의 의사들도 이런 session에 강의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자부심을 갖게 하였을 뿐 아니라 많은 감동을 받았고, 앞으로 이러한 기회가 더 많이 우리 한국 의사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4일간 계속된 학회에서 많은 지식도 얻었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많은 의사들이 부인암이 정복되는 그 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암으로 고통 받는 내 환자의 모습을 생각하며 그들 모두가 완쾌되기를 기원해보았다.

## 저널홈페이지

<http://www.gyneoncology.or.kr>

HOME | SITEMAP | E-MAIL | ADD FAVORITE

### Journal of Gynecologic Oncology

- Home
- About us
- Editorial Board
- Informations for Authors
- Online Submission
- Abstract - Full Text [PDF]
- Manuscript Search
- Feedback

**Current Issue**

Vol. 19 No.2 March 2008  
Journal of Gynecologic Oncology  
ISSN 2005-0390 (Print edition)  
ISSN 2005-0399 (On-line edition)

**Issue Navigation**

**Fertility preservation for women with malignancies: current developments of cryopreservation.**  
J Gynecol Oncol. 2008 Jun; 19(2):99-107. doi: 10.3802/jgo.2008.19.2.99.  
Cheng HJ, Suh CS.

**Value of pelvic examination and imaging modality for the evaluation of tumor size in cervical cancer.**  
J Gynecol Oncol. 2008 Jun; 19(2):108-112. doi: 10.3802/jgo.2008.19.2.108.  
Lee YK, Han SS, Kim JW, Park NH, Song YS, Kang SB.

**Does pretreatment HPV viral load correlate with prognosis in patients with early stage cervical carcinoma.**  
J Gynecol Oncol. 2008 Jun; 19(2):113-116. doi: 10.3802/jgo.2008.19.2.113.  
Kim YM, Park JY, Lee KH, Kong TW, Yoo SC, Kim WY, Yoon JH, Cheng SJ, Cheng KH, Ryu HS.

JOURNAL OF GYNECOLOGIC ONCOLOGY  
KoreaMed  
Synapse  
Korean Society of Gynecologic Oncology and Colposcopy

## 해외 연수 후기

M.D. Anderson Cancer Center



성균관의대 조교수 이정원

2007년 1월 갑작스럽게 해외연수 결정이 났다. 본인의 소속이 새로 건립할 삼성 암센터 소속이라서 장기해외연수를 암센터 개원 전에 다녀와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막상 갑자기 연수를 준비하려니 까 힘들었지만 주임교수이셨던 배덕수 교수님의 한살이라도 일찍 연수 다녀오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위안으로 삼으며 하나씩 준비를 해나갔다. 연수지는 미국 텍사스 M.D. Anderson Cancer Center의 부인 종양학 및 암생물학 교수인 Dr. Anil K. Sood Lab으로 가기로 하였다. Dr. Sood는 최근 난소암 분야의 translational research에 가장 많은 논문과 연구를 하고 있는 이 분야의 신진 대가라 생각되었다. 지금까지 관동의대 김태진 교수님, 동국의대 황지영 교수님이 연수를 다녀오셨고 한국인으로 내가 3번째 방문교수로 일하게 되었다. 두 교수님들이 많은 연구를 하시고 그에 따른 연구 성과도 많으셔서 한국인에 대한 인상이 좋고 평이 좋아 일하기에 편하였다. 우리가족은 한국에서 furnished APT를 미리 예약하여 한달간 편히 지내면서 서서히 정착할 곳을 물색하였다. 메디칼 센터 주위 보다는 좀 더 미국적인 곳을 찾기 위하여 돌아다니다가 정착한 곳은 연구소랑 좀 멀고 한국인들은 많이 살지 않는 sugar land라는 곳이었다. 다행히 APT 렌트비가 좀 싸고 교회가 가까이 있으며, 조용하여 연수 기간 1년 반 동안 편안히 잘 지낸 고마운 곳이다.

연구소에서 내가 수행한 프로젝트는 대략 3가지 정도로 나뉘어진다. 첫 번째로 NCI의 Dr. Mike Bierre의 microarray 실험으로 도출된 난소암에서 cisplatin resistance에 관여하는 두 유전자(DNA polymerase의 일종)에 대한 동물실험으로서 각 유전자에 대한 liposomal-siRNA를 이용하여 mouse에서 therapy experiment를 시행하였다. 결과는 상기 유전자에 대한 siRNA치료는 cisplatin 저항성을 극복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두 번째 프로젝트로는 monoclonal antibody에 항암화학 물질을 접합시킨 면역 접합체(EphA2 immunoconjugate)에 대한 효능실험을 수행하였다. Medimmune이라는 회사에

서 합성한 물질(IC1-mcMMAF)을 가지고 in vitro cytotoxicity 검사를 수행하였고, 이후 mouse를 이용하여 in vivo 실험을 진행하여 이 면역 접합체가 난소암에서 종양성장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이미 발생된 bulkier tumor 모델에서도 종양 regression 효과를 보인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후 같은 내용을 자궁내막암 모델에 적용하여 상기 면역접합체는 자궁내막암에도 역시 효과적임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Dr. Sood Lab은 스트레스와 종양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연구를 많이 시행하였고 연구 업적도 많은데, 대표적으로 2007년 Nature medicine에 보고한 것으로 마우스를 물리적으로 움직임을 제한하는 만성 스트레스를 주었을 때 난소암의 성장이 유



의하게 증가된다고 보고 하였다. 이러한  
 종양성장 촉진 효과는 스트레스에 의해  
 증가하는 catecholamine으로 인해 종양  
 내 혈관 생성을 촉진시켜 발생된다고 발  
 표하였고 이런 종양성장에 대한 영향은  
 종양세포에 존재하는 beta-adrenergic  
 receptor를 통하여 일어난다는 것을 규명  
 하였다. 그리고 이를 억제하는 물질인  
 beta-adrenergic receptor blocker인  
 propranolol을 사용하였을 때 종양 촉진  
 효과가 감소함을 규명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 연구로 급성 스트레스 즉, 외과적 수  
 술에 의한 스트레스가 종양성장에 대한  
 영향을 규명하는 과제가 나에게 주어졌  
 다. 여러 번의 시행 착오를 거쳐 수술(유  
 방절제술 혹은 개복술)을 시행한 마우스  
 에서 대조군에 비해 종양성장이 증가함을  
 알게 되었고 propranolol을 수술 전에 투  
 여함으로써 그 촉진 효과가 상쇄 됨을 알  
 수 있었다.

나의 미국연수생활은 주로 연구실에만  
 집중되어 있었고 MDACC의 실제 임상적

인 부분에 대하여 좀 더 관찰하고 공부하  
 지 못하였던 것이 지금 못내 아쉽다. 또한  
 가족들과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미국의 여  
 러 곳을 여행하지 못하여서 좀 미안한 마  
 음을 가진다. 하지만 이번 연수가 이행성  
 연구에 대한 경험이 적은 나에게 개인적  
 으로 한 단계 상승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  
 음을 돌아온 지금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이런 기회를 주신 본원 이재호, 배덕수,  
 그리고 김병기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  
 씬을 전하고 싶다.



## 해외 연수 후기

### “Making Cancer History” 발자취를 따라서 - UT M.D. Anderson Cancer Center 연수기



가톨릭의대 산부인과 이근호

학회 소식지를 통하여 여러 선생님들의 연수기를 즐겨 읽다가 일년 반 동안의 연수 기간을 되새기면서 내 이야기를 쓰려고 하니 어색하고, 동시에 아쉬운 마음이 든다. 나는 여러 교수님들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서 거의 1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07년 8월 13일 휴스턴 부시 국제 공항에 도착하였다. 휴스턴에 대한 나의 첫 느낌은 매우 덥다는 것이었다. 도착한 당일 낮 온도가 화씨 104도까지 올라갔고, 게다가 에어컨이 고장난 렌터카를 빌리는 바람에 더욱 덥게 느껴졌다.

MDACC에서 연수 중이신 동국대 황지영 선생님이 전통적인 텍사스 모자를 쓰고 공항에 마중을 나와 주셨고, 첫 날은 그 맥에서 하루 신세를 지게 되었다. 현지 선생님들과 미국에 살고 있는 사촌 동생의 도움으로 아파트와 자동차를 마련하고, 전기, 수도, 케이블 TV와 인터넷을 연결하였다. 도착한 후 1주일 만에 곧바로 오리엔테이션을 받으면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모든 신규 직원들이 함께 받는 오리엔테이션은 최우수 기관에서 근무한다는 소속감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Making Cancer History’라는 기관의 이념을 매우 강조하였고, 역사 및 현황을 비롯하여 건물 구조, 주차장, 응급 상황 대처법, 임금과 세금, 친절 교육, 차별 금지, 봉사 활동 심지어는 현혈의 중요성까지 강조하였고, 이것들 대부분은 동영상으로 소개되었다.

근무는 부인 중앙 내과 의사인 Dr. Robert C. Bast 지도 하에 있는

Experimental therapeutics department 소속의 연구실에서 하게 되었다. 연구는 독립적으로 몇 가지 연구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는데 내가 주로 하였던 연구는 제 2의 programmed cell death mechanisms으로 불리는 autophagy에 관한 내용으로 paclitaxel이 난소암 모델에서 apoptosis 이외에 autophagic cell death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또한 난소암 조기 진단법 개발에 관하여 GOG study 시료와 MDACC 환자의 5년 추적 시료를 가지고 HE4와 Mesomark 등의 biomarker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나라에도 이와 같은 공동 시료 확보를 통한 연구가 도입되면 좋을

듯 하다.

우리 연구실은 Translational research에 속한 랩(lab)으로서 임상적 의미를 가진 새로운 분자 생물학적 target 물질을 찾는 연구를 하고 늘 임상과 연계하는 것이 매우 경쟁력 있게 보였다. 대부분의 Lab에서 동물 실험을 시행하고 있었고, 두 개의 큰 실험실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 동물 취급 인증을 딴 후 자체 오리엔테이션을 거쳐야 할 정도로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연구실은 Lab 매니저와 연구원 2명, 그리고 2명의 부교수와 postdoc fellow 4명, 임상 fellow 1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미국 이외에 인도, 영국, 중국, 대만 등에서



SGO meeting에서

온 산부인과와 내과 의사들이라서 비교적 다양한 인종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그들을 통해 각 나라의 의료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간접 비교도 해보고, 서로를 이해하기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다.

MDACC는 최근 몇 년간 News and World reports에서 선정한 암 전문 병원 1위를 고수하는 병원으로서, 같은 암 전문 병원인 뉴욕의 MSKCC와 교류가 빈번하고, 두 기관이 경쟁이 아닌 상호 발전의 상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흥미로웠다. 이 기관의 장점으로는 암에 대한 모든 전문가 즉, 의료진을 비롯하여, 기초 연구자, 코디네이터, 사회 사업가, 암 생존자 모임, 자원 봉사자, 기부자 등이 유기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직 암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 및 임상 연구와 수많은 암 관련 모임들이 매우 전문화된 모습이었다.

임상을 직접 볼 기회가 많지는 않았지만, 외래와 진료 회송 센터, 산부인과 병동 및 중환자실, 당직실 등을 둘러 보고, 수술을 참관하는 기회도 가졌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하드웨어에 관해서는 우리 나라 기관도 뒤떨어져 있지 않다는 걸 느꼈다.

크리스마스과 여름 휴가를 이용한 가족 여행을 통해 모처럼 연수 일정에서 잠시 여유를 가져보았다. 휴스턴이 중부의 남쪽에 조금 외진 곳에 위치하여 동부나 서부 지역까지는 가볼 수 없었고, 초등학교 1학년인 딸 원경을 위해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위치한 디즈니 월드에 다녀왔고, 사촌 동생 가족을 만나기 위해 콜로라도주 덴버에 다녀왔다. 그리고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진행된 AAGL과 SGO 모임에 참석하여 반가운 학회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

또한 작년 여름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였는데, 열대성 폭우로 이틀간 병원이 폐쇄되었고, 휴스턴 일대를 강타한 허리케인 '아이크'로 인해 전기, 수도가 끊긴 채 며칠동안 고생했던 생각이 난다. 그래도 지난 12월 거의 십 년에 한번씩 내린다는 함박눈으로 눈사람을 만들기도 했다. 이렇게 연수 시절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에 휴스턴이 더욱 정겹게 느껴졌고 이 시간은 앞으로 나의 인생에서 좋은 추억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사하게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후, 반가워 해주신 여러 학회 임원 및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봄 기운이 만연한 이 따뜻한 날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촌동생내외와 al park에서

# 2009년 제8차

# 대한부인종양연구회 심포지엄 및 워크숍

일시 : 2009년 4월 16일(목) 장소 : 대구인터볼고호텔

08:50~09:00 개 회 사

강순범 회장(서울대학교병원)

## KGOG Symposium

### KGOG Papers Published

좌장 : 차순도(동산의료원)

09:00~09:10	Over Expression of the Osteopontin Correlates with the Aggressiveness of Endometrial Cancer (KGOG2003)	조치흠(동산의료원)
09:10~09:20	Ovarian Preservation During Surgical Treatment of Early Stage Endometrial Cancer (KGOG2004)	이택상(보라매병원)
09:20~09:30	Retrospective-Clear Cell Carcinoma (CCC) of the Ovary (KGOG3003)	유상영(원자력의학원)

### Special Lectures

좌장 : 김경태(한양대학교병원), 남주현(서울아산병원)

09:30~09:50	On the Horizon: Developing Therapeutics	Anil K. Sood (M.D.Anderson Cancer Center, USA)
09:50~10:10	Epidemiologic Report of Gynecologic Cancers in Thailand	Sarikapan Wilailak (Mahidol Univ.,Thailand)
10:10~10:30	Neuroendocrine Influences on Cancer Metastasis	Anil K. Sood (M.D.Anderson Cancer Center, USA)
10:30~10:50	Coffee Break	

### Brief Review of 78th GOG Semi Annual Meeting

좌장 : 유희석(아주대학교병원)

10:50~11:05	Cervix Committee	권용일(강동성심병원)
11:05~11:20	Ovarian Committee	김병기(삼성의료원)
11:20~11:35	Endometrial Committee	김중혁(서울아산병원)
11:35~13:00	Lunch	

### GSK Luncheon Symposium

좌장 : 김원규(고신대의복음병원)

11:35~12:05	Think Long-term : Protect with Cervarix	김승철(이대목동병원)
-------------	---	-------------

## KGOG Workshop

### Introduction of Ongoing Studies KGOG Protocols

좌장 : 박찬용(가천의대길병원), 이선경(동서신의학병원)

13:00~13:15	<b>CVM0801</b> : Randomized Clinical Trial for Adjuvant Chemo-radiation in Post-operative Cervical Cancer Patients with Intermediate Risk Factors	유상영(원자력의학원)
13:15~13:30	<b>KGOG 2006</b> : Management of Endometrial Hyperplasia with Levonorgestrel Releasing Intrauterine System: Prospective Multicenter Study	성석주(강남차병원)
13:30~13:45	A Prospective Multicenter Trial to Evaluate Impact of HPV Vaccine on Persistent HPV Infection and Recurrence of CIN in Women Treated by Conization for CIN 2 or 3	장석준(아주대병원)
13:45~14:00	A Phase II Randomized Controlled Clinical Trial of Carboplatin and Paclitaxel or Carboplatin and Gemcitabin in Platinum-sensitive, Recurrent Ovarian, Fallopian Tube, and Primary Peritoneal Cancer	주 용(이대목동병원)

### Educational Session

좌장 : 최호선(전남대병원)

14:00~14:20	Statistical Analysis in Clinical Trials: Efficacy & Safety	남병호(국립암센터)
14:20~14:35	New Response Evaluation Criteria in Solid Tumors (RECIST ver 1.1)	이택상(보라매병원)
14:35~14:50	Practical Issues of Conducting Global Clinical Trials	김선희(KGOG CRA)
14:50~15:10	Coffee Break	

### International Protocols

좌장 : 김영탁(서울아산병원), 김영태(세브란스병원)

15:10~15:30	<b>GOG 218</b> : A Phase III Trial of Carboplatin and Paclitaxel Plus Placebo Versus Carboplatin and Paclitaxel Plus Concurrent Bevacizumab Followed by Placebo, Versus Carboplatin and Paclitaxel Plus Concurrent and Extended Bevacizumab, in Women with Newly Diagnosed, Previously Untreated, Suboptimal Advanced Stage Epithelial Ovarian and Primary Peritoneal Cancer	김재훈(강남세브란스병원)
15:30~15:50	<b>GOG 213</b> : A Phase III Randomized Controlled Clinical Trial of Carboplatin and Paclitaxel Alone or In Combination with BEVACIZUMAB followed by BEVACIZUMAB and Secondary Cytoreductive Surgery in Platinum-sensitive, Recurrent Ovarian, Peritoneal Primary and Fallopian Tube Cancer. NCI-SUPPLIED AGENTS: BEVACIZUMAB	정현훈(서울대학교병원)
15:50~16:10	<b>AGO-OVAR16/VEG110655</b> : A Phase III Study of Evaluate the Efficacy and Safety of Pazopanib Monotherapy Versus Placebo in Women Who Have not Progressed after First Line Chemotherapy for Epithelial Ovarian, Fallopian Tube, or Primary Peritoneal Cancer	김재원(서울대학교병원)
16:10~16:30	<b>S-1</b> : A Phase III Study of S-1+Cisplatin Compared with Single-Agent Cisplatin in Stage IVB, Recurrent of Persistent Carcinoma of the Cervix	권상훈(동산의료원)

16:30 폐회



대한부인종양연구회



http://www.kgog.org Tel : 02-512-5420 Fax : 02-512-5421

후원 : 국립암센터 성인과형암치료임상연구센터,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단

Korean Gynecologic Oncology Group

# 2009년 24차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학술대회

일시 | 2009년 4월 17일 (금) 장소 | 대구 인터블고 호텔

08:00-08:30	Registration	
08:30-08:45	Opening remark, Ceremony of awarding prize	회장: 황윤영 (차의과대학)
<b>Session I</b>	<b>Ovarian Cancer</b>	좌장: 이용수 (인제대), 이효표 (서울대)
08:45-09:00	Neoadjuvant chemotherapy in advanced ovarian cancer	박상윤 (국립암센터)
09:00-09:05	Discussion	김재원 (서울대)
09:05-09:25	Angiogenesis and tumor microenvironment in gynecologic malignancies	Anil K. Sood (M.D. Anderson Cancer Center)
09:25-09:30	Discussion	이정원 (성균관대)
09:30-09:50	Molecularly targeted chemotherapy	Anil K. Sood (M.D. Anderson Cancer Center)
09:50-09:55	Discussion	김태진 (관동대)
09:55-10:10	Optimization for maintenance/consolidation therapy in patients with ovarian Cancer	김병기 (성균관대)
10:10-10:15	Discussion	이선영 (차의과대학)
10:15-10:30	Break	
<b>Plenary session</b>		좌장: 남주현 (울산대), 한세준 (조선대)
10:30-10:40	Plenary session 1 (10분 발표)	
10:40-10:45	Discussion (5분 토론)	
10:45-10:55	Plenary session 2	
10:55-11:00	Discussion	
11:00-11:10	Plenary session 3	
11:10-11:15	Discussion	
11:15-11:25	Plenary session 4	
11:25-11:30	Discussion	
11:30-11:40	Plenary session 5	
11:40-11:45	Discussion	
11:45-11:55	Plenary session 6	
11:55-12:00	Discussion	
<b>Luncheon seminar</b>		좌장: 이승호 (영남대)
12:00-12:30	Clinical Implication of LNG-IUS (Mirena)	성석주 (차의과대학)
12:30-13:00	Lunch	
<b>Free communications</b>		
13:00-14:30	<b>Hall I</b> 일반 연제 (9편/각 8분 발표, 각 2분 Discussion)	좌장: 김영탁 (울산대), 안용식 (가톨릭대), 차순도 (계명대)
	<b>Hall II</b> 일반 연제 (9편/각 8분 발표, 각 2분 Discussion)	좌장: 김승철 (이화대), 박상윤 (국립암센터), 윤만수 (부산대)
14:30-15:00	Break	
<b>Session II</b>	<b>Cervical Cancer</b>	좌장: 강순범 (서울대), 조영래 (경북대)
15:00-15:20	Adjuvant treatment in cervical cancer	Sarikapan Wilailak (Mahidol University)
15:20-15:25	Discussion	노주원 (중국대)
15:25-15:40	Treatment of Recurrent cervical cancer update	이천준 (고신대)
15:40-15:45	Discussion	이윤순 (경북대)
15:45-16:00	Molecular carcinogenesis and targeted therapy for endometrial cancer	김정식 (순천향대)
16:00-16:05	Discussion	조치흠 (계명대)
16:05-16:30	Break	
<b>Session III</b>	<b>Tumor Board</b>	진행: 조치흠 (계명대), 주 용 (이화대)
16:30-17:30	Tumor Board	consultant: 김기태 (인제대), 김승철 (이화대), 김영탁 (울산대), 박상윤 (국립암센터)
08:00-17:30	<b>포스터 전시</b>	
17:30-	폐회	
18:30-20:00	우수논문상 시상 및 만찬	

# 학회 회무보고

## 2008년 제 1차 교과서편찬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08년 9월 17일(수) 오후 7시
- 장 소 : 티원
- 참석자 : 김경태, 김병기, 김원규, 김태진, 박충학, 배덕수, 송용상, 유희석, 차순도, 최철훈(이상 10명)

### ▶ 논의사항

1. 원고 전체의 흐름을 보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짧게 강력하게 끝내야 한다
2. 레지던트가 가볍게 볼수 있는 책으로 만들어야 한다
3. 원본 책과 부록으로 만들어야 한다
4. Survey해서 결정하기로 하자
5. 타학회의 국문 매뉴얼을 보고 벤치마킹하자  
설문지 : 부인종양학회 회원들, 레지던트
6. 11월 심포지움 점심시간전 설문조사를 하거나 표를 만들어  
딱지 붙이기를 하자
7. 책자에 CD를 삽입하자
8. 교과서 편찬위원회에 김경태 선생님도 포함시키자

## 2008년 제 6차 편집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08년 10월 8일(수) 오후 6시
- 장 소 : 학회 사무실
- 참석자 : 유희석, 김재원, 조치흠, 이종민, 박영한(이상 5인)

### 1. 제 5차 편집위원회 회의록 - 무수정 통과

### 2. 보고사항

- 1) Manuscript Central™ 접수 현황: 원저 3편, 증례 2편  
기존 system (원저 2편, 증례 3편)로 총 원저 5편, 증례 5편임  
추가 접수 독려기로 함
- 2) 학술지 홈페이지 [www.gyneoncology.or.kr](http://www.gyneoncology.or.kr) open함: update  
마치면 외국에 홍보 예정
- 3) Pubmed, SCI, SCOPUS, EmBase에 등재 신청함
- 4) 11월 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대상자: 진행기로 함
- 5) Google Scholar & KAMJE Journal Digital Archiving  
공동 사업 참여함

### 3. 논의 사항

- 1) '학회지 공로상(가칭)' 신청 공고기로 함
- 2) 12, 3, 6월호 review 주제 및 저자 선정/원고 요청: Robert  
Burger, 11월 부인종양학회 특강 외국연자들에게 full  
paper 받기로 함
- 3) 외국인 원저 유치 건/외국 부인종양 학회(특히 아시아 지  
역) 투고 유치 방안: IGCS 학회에서 홍보활동 전개, 팜플  
릿을 만들기로 함

## 2008년 제 3차 상임이사회

- 일 시 : 2008년 11월 17일(월) 오후 7시
- 장 소 : 흥연
- 참석자 : 강순범, 김경태, 김수녕, 김승조, 김재욱, 김태진,  
남궁성은, 남주현, 목정은, 문형, 박찬규, 배덕수,  
배동한, 안웅식, 이규완, 이태성, 이효표, 차순도,  
한세준(이상 19명)

### 1. 회장님 인사말씀

### 2. 2008년 제 2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보고 - 무수정 통과

### 3. 보고사항

- 1) 사업보고
- 2) 회무 보고
- 3) 재무보고

### 4. 논의사항

- 1) 2009년 4월 춘계 학술대회 일시 및 장소  
일시: 2009년 4월 17일(금)  
장소: 대구 인터볼고에서 하기로 결정
- 2) 임원개선건 : 2009년 회장은 포천중문의대 황윤영 교수  
님이 추천되어 통과됨  
차기 회장은 인제의대 이응수 교수님이 추천되어 통과됨.
- 3) 학회 회칙 개정의 건: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함.

# 학회 회무보고

## ▶ 2008년 제3차 상임이사회 학회회칙 개정의 건

	현 행	개 정 안	개정 내용
제10조 (선거)	회장, 부회장, 명예회장은 상임이사회에서 부인종양학 전문교수 중 추천하여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서 인준한다. (단, 부회장 1명은 학외에서 선출할 수도 있다.) 회장은 이사 및 상임이사(학술, 기획, 편집, 심사, 재정, 국제교류, 홍보, 보험, 윤리, 정보통신, 수련, 부인암 예방 위원장, 사무총장 등)를 임명할 수 있다.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명예회장은 회장을 역임한 회원으로 추대한다. 고문은 명예회장단 회의에서 추대한다.	명예회장단 회의는 차기 회장과 부회장 후보를 추천한다. 추천된 후보를 상임이사회,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서 인준한다. (단, 부회장 1명은 학외에서 선출할 수도 있다.) 회장은 이사 및 상임이사(학술, 기획, 편집, 심사, 재정, 국제교류, 홍보, 보험, 윤리, 정보통신, 수련, 부인암 예방 위원장, 사무총장 등)를 임명할 수 있다.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명예회장은 회장을 역임한 회원으로 추대한다. 고문은 명예회장단 회의에서 추대한다.	차기 회장의 추천을 상임이사회에서 명예회장단으로 이전함
제16조 (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는 연 2회 이상 소집하며 회장단, 명예회장단, 상임이사 및 감사가 참석하여 본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상임이사회는 연 2회 이상 소집하며 직전임회장, 회장단, 상임이사가 참석하여 본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명예회장과 감사가 빠지고 직전임회장만 들어감
제17조 (명예회장단 회의)		명예회장단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학회의 중요한 사항을 보고하고 인준을 얻는다.	신설

## ▶ 2008년 정기이사회 회칙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개정 내용
제10조 (선거)	회장, 부회장, 명예회장은 상임이사회에서 부인종양학 전문교수 중 추천하여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서 인준한다. (단, 부회장 1명은 학외에서 선출할 수도 있다.) 회장은 이사 및 상임이사(학술, 기획, 편집, 심사, 재정, 국제교류, 홍보, 보험, 윤리, 정보통신, 수련, 부인암 예방 위원장, 사무총장 등)를 임명할 수 있다.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명예회장은 회장을 역임한 회원으로 추대한다. 고문은 명예회장단 회의에서 추대한다.	명예회장단 회의는 차기 회장과 부회장 후보를 추천한다. 추천된 후보를 상임이사회,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서 인준한다. (단, 부회장 1명은 학외에서 선출할 수도 있다.) 회장은 이사 및 상임이사(학술, 기획, 편집, 심사, 재정, 국제교류, 홍보, 보험, 윤리, 정보통신, 수련, 부인암 예방 위원장, 사무총장 등)를 임명할 수 있다.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명예회장은 회장을 역임한 회원으로 추대한다. 고문은 명예회장단 회의에서 추대한다.	차기 회장의 추천을 상임이사회에서 명예회장단으로 이전함
제16조 (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는 연 2회 이상 소집하며 회장단, 명예회장단, 상임이사 및 감사가 참석하여 본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상임이사회는 연 2회 이상 소집하며 직전임회장, 회장단, 상임이사가 참석하여 본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명예회장과 감사가 빠지고 직전임회장만 들어감
제17조 (명예회장단 회의)		명예회장단 회의는 연 2회 이상 소집하며 명예회장 및 회장이 참석하여 본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보고한다.	조항 추가

일부 이사님들의 제 10,16,17조 개정을 요구하였음

명예회장단에서는 명예회장단이 제외된 상태에서 상임이사가 열린 사실과 학회 회칙을 반한 상태에서 개정안이 발의되어 회의가 열린 사실에 대하여 이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전임 김경태 회장님이 이에 대한 사과를 함. 상임이사회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된 투표에 대해서는 전임 김경태 회장님이 다음번 학회 집행부에서 상임이사회를 재소집한 상태에서, 당일날 가결한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차기 집행부의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한 다음, 정식 안건으로 올려 총회에서 즉 (2009년 11월)에서 인준하여 결정하기로 정함.

# 학회 회무보고

## 2008년 정기이사회

- 일 시 : 2008년 11월 28일(금) 오전 7시
- 장 소 : 소피텔 엠버서더
- 참석자 : 강순범, 김경태, 김기태, 김성한, 김수녕, 김승조, 김승철, 김영태, 김원규, 김재욱, 김태진, 김학순, 남계현, 남주현, 목정은, 박상윤, 박종섭, 박종택, 박찬규, 박충학, 배덕수, 배동한, 송용상, 안웅식, 오병찬, 유희석, 이규완, 이선경, 이승수, 이의돈, 이준모, 이현영, 이효표, 전종수, 조영래, 차순도, 최호선, 한세준, 허주엽(총 39명)

### 1. 인사말씀

### 2. 2007년 전체이사회 회의록 - 무수정 통과

### 3. 보고사항 - 무수정 통과

- 1) 사업보고
- 2) 회무보고
- 3) 재무보고

### 4. 토의사항

- 1) 임원 개선  
차기회장: 포천 중문의대 황윤영 교수님  
차기부회장: 인제의대 일산 백병원 이승수 교수님  
차기부회장: 경북의대 조영래 교수님  
만장일치 박수로 가결
- 2) 회칙 개정안  
회칙개정안을 회장이 발표하고 이사님들의 의견을 수렴함

## 2009년 제 1차 상임이사회

- 일 시 : 2009년 1월 15일(목) 오후 7시
- 장 소 : 취영루
- 참석자 : 김경태, 김기태, 김수녕, 김영태, 박상윤, 송용상, 안웅식, 이승수, 이찬, 조영래, 차순도, 황윤영(총 12명)

### 1. 회장님 인사말씀

### 2. 2008년 제 3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보고-무수정 통과

### 3. 보고사항

- 1) 2008년 제 14차 심포지엄 및 정기총회 개최함  
날짜 : 2008년 11월 28일(금) 장소 : 한양대학교병원 HIT  
등록인원 : 242명
- 2) 학회지 공로상 및 우수논문상 수상자  
학회지 공로상  
수상자: 서울의대 김희승  
수상자: 서울의대 박노현  
수상자: 국립암센터 임명철  
우수논문상(영어논문)  
수상자: 서울의대 이유경  
수상자: 아주의대 장석준  
수상자: 경희의대 기경도  
수상자: 아주의대 장기홍  
수상자: 이화의대 김승철  
수상자: 서울의대 김민정  
수상자: 아주의대 유승철  
수상자: 울산의대 Ke Long Jin  
수상자: 서울의대 김미경
- 3) 학회기금 및 운영비를 1월 12일(월)에 인수인계함  
기금 : 380,000,000원  
운영비 : 47,220,718원  
추가 운영비 입금 예정 : 44,500,000원
- 4) 제 24차 학술대회 준비  
날짜 : 2009년 4월 17일(금) 장소 : 대구 인터불고  
초청 외국인자  
Sarikapan Wilailak : (Mahidol Univ.)  
Anil K. Sood : (University of Texas M. D. Anderson Cancer Center)  
프로그램 : 학술위원회에서 논의 예정
- 5) 제 8차 대한부인종양연구회 워크숍  
날짜 : 2009년 4월 16일(목) 장소 : 대구 인터불고 KGOG에서 준비
- 6) 배동한 교수(순천향의대), 이태성 교수(대구가톨릭의대) 감사 연임의 건  
찬성 : 122표 / 반대 : 10표로 연임 확정
- 7) 가다실 리뷰전 건
- 8) 서바릭스 배포의 건
- 9) 2008년 세무신고  
2008년부터 학회 수입 관련하여 세무신고를 하여 세금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8년 수입, 지출 관련하여 이지영 세무사가 맡아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 학회 회무보고

- 10) 제 1차 ASGO 실무위원회 회의  
 일 시 : 2009년 1월 2일(금) 장소 : 학회 사무국  
 참석자 : 강순범, 김승철, 김영태, 남주현, 유희석, 이 찬, 황윤영, 김윤환

## 4. 토의사항

- 1) 제 15차 심포지움  
 날짜 : 가을 개최 예정인 ASGO 학회 일주일전에 개최  
 장소 : 아산병원과 강남 성모병원 중 택일
- 2) 2009.10.19~20 개최 예정인 암예방학회 세미나와 연계하여 본학회 주관으로 외국연자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부인암예방위원회와 학술위원회에서 논의 예정)
- 3) 제 2차 부인암 전문의를 위한 cadaver workshop  
 가을 심포지움과 연계하여 biennial workshop으로 개최  
 금년 학회 실무진에서 사전 준비 후 차기 학회(2010)에서 개최
- 4) 수련위원회 : 제 3차 부인종양 전문의를 위한 워크숍 예정  
 가을에 건국대 병원에서 개최 예정이며 수련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 5) 회칙 개정의 건 : 이응수 부회장님 주관하에 TFF를 구성하고, 지난번 정기이사회 토의 사항과 전회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시안을 만들어 다음(2009년 4월)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참석한 상임이사 전원이 찬성으로 의결
- 6) 각 위원 구성 조직도(첨부)  
 다수의 인원이 위원회에 중복되어, 학회에서 조정 후 결정
- 7) 암정보 정책을 위한 정책 연구과제 수요조사(첨부)  
 보건복지부와 대한산부인과학회의 협조 요청사항이나 현실적으로 준비시간이 부족하고, 전문암예방학회와 같은 조직에서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본학회에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
- 8) 2008년과 마찬가지로 후생신보에 부인암 예방에 관한 원고를 싣기로 함.
- 9) 가다실 임상권고안 revision과 써바릭스 임상 권고안 배포건은 부인암 예방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며, 인터넷을 통한 홍보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학회의 로고가 들어간 임상권고안의 배포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학회에서 해당 제약회사에 공문을 보낼 예정임.

## 제1차 학술위원회

- 일 시 : 2009년 1월 22일(목) 오후 7시
- 장 소 : 예당
- 참석자 : 김재원, 남계현, 이낙우, 이응수, 이찬, 황윤영, 박소희 (이상 7명)

1. 2008년 제2차 학술위원회 회의록 보고 → 무수정 통과

## 2. 보고사항

- 1) 2008년 제23차 춘계학술대회 개최함  
 날짜 : 2008년 4월 25일(금) 장소 : 제주 롯데호텔  
 등록인원 : 301명
- 2) 2008년 제14차 추계심포지움 개최함  
 날짜 : 2008년 11월 28일(금) 장소 : 한양대학교병원 HIT  
 등록인원 : 242명

## 3. 논의사항

- 1) 제 24차 춘계학술대회 프로그램 논의  
 날짜 : 2009년 4월 17일(금) 장소 : 대구 인터불고  
 - Penary session을 좀 더 보강하기 위하여 오전 세션으로 옮기기로 함. 그 외 프로그램 형태만 정하고 세부 연자 및 연제는 추후 학술위원회에서 확실히 정하기로 함 (특강, Penary session, Luncheon, 일반연제, Tumor Board 형태로 진행 예정)
- 2) 초청 외국연자  
 Anil K. Sood : (University of Texas M. D. Anderson Cancer Center)  
 - KGOG 발표 1개, KSGOC 발표 2개  
 공문을 보내서 미리 발표할 연제를 4개정도 받은 후 다음 학술위원회 회의에서 연제를 선택하기로 함  
 Sarikapan Wilailak : (Mahidol Univ.)  
 - KGOG 발표 1개, KSGOC 발표 1개  
 학회에서 발표 연제를 지정 후 초청장 공문을 보내기로 함
- 3) 제 2차 학술위원회  
 2월 12일 오후 7시, 학회 사무국에서 개최 예정  
 발표 연제 및 연자 추천을 2월 6일(금)까지 받기로 함
- 4) 제 15차 추계심포지움  
 일시 : 2009년 11월 13일(금) 장소 : 서울 아산병원 대강당

## 제1차 부인암예방위원회

- 일 시 : 2009년 2월 5일(목) 오후 7시
- 장 소 :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사무국
- 참석자 : 송용상, 권용일, 김병기, 김용범, 송승훈, 이선영, 이정필, 최석철, 황성욱, 사무총장(이찬), 전 부인암예방위원회 간사(허수영), 이상 11명

## ▶ 논의사항

1. GSK 백신 가이드라인 학회 명칭 포함의 건

# 학회 회무보고

- 1)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서바릭스®)의 임상 권고안' 책자의 앞면과 뒷면의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의 명칭과 로고를 삭제하기로 한다.
  - 2) 뒷면의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회장 및 사무총장의 성명과 부인암 예방위원회 위원의 성명을 삭제하기로 한다.
  - 3) 상기와 같이 삭제하는 대신 책자의 뒷면 하단에 '이 자료는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부인암예방위원회의 권고안을 참고로 제작되었습니다.'라는 문구를 넣을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4) 학회의 이름과 로고를 삭제하는 대신 회사의 로고와 명칭을 삽입하는 문제는 회사에 일임하기로 한다.
2. GSK 백신 가이드라인 의사용 및 일반용 온라인사이트 업로드의 건
- 1) GSK 백신 가이드라인이 최종적으로 학회의 검증을 거친 후 제작이 되면 이후에 회사의 on-line site에 up-load할 수 있기로 한다.
  - 2) 단, up-load는 일반용이 아닌 의사용에만 up-load하여 전문가(의사)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3. MSD 가이드라인 접종 나이 변경의 건
- 1) MSD 가이드라인 책자의 표지 앞면과 뒷면의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의 명칭과 로고, 부인종양 콜포스코피학회 회장 및 사무총장의 성명과 부인암 예방위원회 위원의 성명의 사용은 GSK 백신 가이드라인 책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2) 상기와 같이 하는 대신 책자의 뒷면 하단에 '이 자료는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부인암예방위원회의 권고안을 참고로 제작되었습니다.'라는 문구를 넣을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3) 학회의 이름과 로고를 삭제하는 대신 회사의 로고와 명칭을 삽입하는 문제는 회사에 일임하기로 한다.
  - 4) 가다실(의사용)의 접종대상 부분의 다음 부분은 수정하기로 한다.
    - 4) 유효성과 면역원성 연구결과에 근거한 접종 가능 연령 27~45세 여성  
-수정-
    - 4) 면역원성 연구결과에 근거한 예방효과가 가능한 연령 27~45세 여성
  - 5) 가다실(일반인용)의 접종대상 부분의 다음 부분은 수정하기로 한다.

이 최적 접종 연령시기에 접종을 받지 못한 여성의 경우 18-26세에 따라잡기(catch-up) 접종을 권장하며,

유효성과 면역원성 데이터에 근거하여 45세까지 접종이 가능합니다.

-수정-

이 최적 접종 연령시기에 접종을 받지 못한 여성의 경우 18-26세에 따라잡기(catch-up) 접종을 권장합니다. 면역원성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45세까지 예방효과가 가능합니다.

## 4. 암정보 정책과제 연구과제 제출의 건

- 1) 일정상 연구과제는 제출하지 않기로 한다.
- 2) 2009년도 부인암예방위원회 사업으로 '부인암환자를 위한 식이 가이드라인(가칭)', '부인암환자를 위한 운동 가이드라인(가칭)'을 제작하기로 한다.
- 3) 이를 위하여 기존에 발표된 외국의 가이드라인과 국내 타과 학회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수집하여 다시 검토하기로 한다.

## 제2차 학술위원회

- 일 시 : 2009년 2월 12일(목) 오후 7시
- 장 소 : 가시리
- 참석자 : 김병기, 김용만, 김원규, 김재원, 남계현, 박태철, 이선경, 이낙우, 이응수, 이 찬, 조치흠, 황윤영(이상 12명)

### 1. 위원장님 인사 말씀

### 2. 2009년 1차 학술위원회 회의록 보고 - 무수정 통과

### 3. 논의 사항

- 1) 2009년 제24차 춘계학술대회 프로그램 논의 및 확정
  - Plenary session을 오전 session으로 옮기기로 함.
  - 특강, Plenary session, Luncheon seminar, 일반연제, Tumor board 순서로 진행하기로 함.
  - 세부 연자 및 연제 확정
- 2) 외국 초청 연자
  - Sarikapan Wilailak, M.D.: (Mahidol Univ.)
    - KSGOC 발표 1개(Adjuvant treatment in cervical cancer)
  - Anil K. Sood, M.D.
    - KSGOC 발표 2개(Angiogenesis and tumor microenvironment in gynecologic malignancies, Molecularly targeted chemotherapy)

# 학회 회무보고

## 제 7차 편집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09년 2월 17일(화) 오후 7시 30분 ~ 8시 30분
- 장 소 : 학회 사무실
- 참석예정 : 유희석, 김승철, 이종민, 이 찬, 김재원, 김종혁, 박영한, 장기홍, 조혜민, 김미경 (이상 10명)

### 1. 제 6차 편집위원회 회의록 - 무수정 통과

### 2. 보고사항

- 1) 12월호 발간함
- 2) 원고 접수 현황 (8 original article, 4 case report)  
3월호 증례는 2편만 게재하기로 함  
Farid Aziz의 종설 접수됨, ASGO 관련 외국연자 종설은 3월호 혹은 6월호 게재 예정임  
Robert Burger, Henry Kitchener 종설 접수 예정  
3, 4월에 한국 방문하는 Kamura, Fowler 교수에게 종설 요청기로 함
- 3) 논문 미제출자 목록 : 마감일이 지난 2명(박정열, 주원택)에게 논문 제출 독려기로 함  
3월 발간 예정인 소식지에 미제출자 목록 게재 예정임
- 4) Pubmed Central 등재 신청함: 상세 내용에 대해 조혜민 ME의 설명 있었음
- 5) 의편협 허 선 교수의 제안에 따라 학회지 site (www.gyneoncology.or.kr) 수정 중임
- 6) 4월 학회 학술상 수상 대상자 목록 : 2008년 12월호 및 9년 3월호 논문 제출자가 대상임

### 3. 논의 사항

- 1) 논문 미제출자 대처 방안: 이번 학회부터 학술대상 및 우수논문상은 선정 후 수상 후보자로 발표만하고 논문 제출상황을 본 후에 11월 또는 다음 학술대회에서 시상하는 방안 추진
- 2) 대부종 제2009-10호와 관련된 학술상 선정 의뢰 건은 2008년 6월호~12월호는 영문 논문 제출에 따른 학술상을 수상한(하는) 경우임. 한 논문으로 두 번 수상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문과 관련되어 선정된 논문은 과거 우수 논문으로 추천기로 의견 모음
- 3) '학술대상, 학술상 및 우수논문상 규정' 수정 필요성에 공감함
- 4) 스즈오 선생 논문은 정식 심사 과정 거치기로 함
- 5) 4월 학회 및 8차 KGOG 심포지엄의 일부 국내/국외 연자에게 종설 요청기로 함

- 4) 학회지 인용 증대 홍보 방안으로 '학회지 공로상' 관련 공지기로 함
- 5) Editorial Board Member, Int'l 추가 건: ASGO 각 scientific committee member에게 자격 요건이 되는 분을 추천 의뢰기로 함
- 6) 11월 심포지엄에 학회지 관련 session 요청기로 함: 잠정 연자 김재원, 장기홍, 조혜민
- 7) 현 논문 심사 시스템에서 revision 의뢰할 때 저자의 수정사항이 첨부되지 않아 심사 과정이 순조롭지 않다는 이종민 교수의 지적에 따라 심사 의뢰 시스템 수정기로 함

\* 학회지의 표지 및 내부 논문 design에 대한 조혜민 ME의 제안이 있었음.  
- 2010년부터 적용 가능

## 제2차 부인암예방위원회

- 일 시 : 2009년 3월 5일(목) 오후 7시
- 장 소 :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사무국
- 참석자 : 송용상(위원장), 강석범, 권용일, 김용범, 송승훈, 이선영, 이정필, 최석철, 이 찬(사무총장), 이상 9명

### ▶ 논의사항

#### 1. HPV 백신 가이드라인 변경에 관한 건

- 2009년 2월 5일 회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서바릭스®)의 임상 권고안' 책자의 앞면과 뒷면의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의 명칭과 로고를 삭제하기로 한다.
- 2) 뒷면의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회장 및 사무총장의 성명과 부인암 예방위원회 위원의 성명을 삭제하기로 한다.
- 3) 상기와 같이 삭제하는 대신 책자의 뒷면 하단에 '이 자료는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부인암예방위원회의 권고안을 참고로 제작되었습니다.' 라는 문구를 넣을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4) 학회의 이름과 로고를 삭제하는 대신 회사의 로고와 명칭을 삽입하는 문제는 회사에 일임하기로 한다.
- 5) GSK 백신 가이드라인이 최종적으로 학회의 검증을 거친 후 제작이 되면 이후에 회사의 on-line site에 up-load할 수 있기로 한다. 단, up-load는 일반용이 아닌 의사용에만 up-load하여 전문가(의사)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학회 회무보고

6) 가다실(의사용)의 접종대상 부분의 다음 부분은 수정하기로 한다.

4) 유효성과 면역원성 연구결과에 근거한 접종 가능 연령  
27~45세 여성

-수정-

4) 면역원성 연구결과에 근거한 예방효과가 가능한 연령  
27~45세 여성

7) 가다실(일반인용)의 접종대상 부분의 다음 부분은 수정하기로 한다.

이 최적 접종 연령시기에 접종을 받지 못한 여성의 경우 18-26세에 따라잡기(catch-up) 접종을 권장하며, 유효성과 면역원성 데이터에 근거하여 45세까지 접종이 가능합니다.

-수정-

이 최적 접종 연령시기에 접종을 받지 못한 여성의 경우 18-26세에 따라잡기(catch-up) 접종을 권장합니다. 면역원성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45세까지 예방효과가 가능합니다.

## 2. '부인암환자를 위한 생활 가이드라인(가칭)'에 관한 건

1) '부인암환자를 위한 생활 가이드라인(가칭)'을 제작하여 학회의 web site에 올리기로 한다.

2) '부인암환자를 위한 생활 가이드라인(가칭)'에 대한 제목은 추후 정하기로 한다.

3) 책자 제작에 관한 건은 추후 논의하기로 한다.

4) 목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예정)

- General guide-line for gynecologic cancer patients

- Guide-line for gynecologic cancer patients in chemotherapy and radiotherapy

- Guide-line for gynecologic cancer patients in special condition

- lymphedema, colostomy, ilieal conduit

- colitis from radiotherapy, granulocytopenia from chemotherapy

- Guide-line for gynecologic cancer

- cervix, uterus, ovary, vulva and vagina, GTT.....

- FAQ

- Herb medication, alternative medicine, cooking

- NCI comment

5) 각 분야별 담당자는 실무담당인 권용일, 김용범, 이정필 위원이 협의하여 분배하고 진행하기로 한다.

6) 각 담당자는 자료를 정리하여 가안을 제작하고 차기 부인암예방위원회에서 토의하기로 한다.

## 3. 장애인 복지관 문의에 관한 건

1) 답변은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의 박소희 명의로 답변하기로 한다.

2)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귀하의 질문에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하여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본 학회의 부인암예방위원회의 문의한 결과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자궁경부암예방백신에 대하여 이루어진 연구 및 임상시험을 살펴볼 때, 대상연령 초등학교 5학년 - 중학교 2학년 학생 중에서 뇌성마비, 소아마비, 지체장애, 발달장애 등의 장애가 있을 경우 장애가 없는 일반 학생과 비교하여 효용성 혹은 부작용에 대한 차이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귀하가 문의하신 대상에 대한 예방접종의 비적응증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4. 한국과학재단 기초연구사업 연구계획서에 관한 건

- 연구제목 “한국 자궁경부암 국가암검진프로그램에서 인유두종바이러스 자가채취검사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전향적 연구”의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함.

## 5. Symposium 개최에 관한 건

- Symposium 'Nutrition and Exercise in Aging, Obesity and Cancer'(가칭)의 개최에 대하여 논의함.

1) 목적 : 위 Symposium을 통하여 국내외 연구자들과의 network를 형성하고 Symposium의 성과로서 special issue 형태로 국외잡지에 투고한다.

2) 일정 : 2박 3일(예정)

3) 연자 : 총 10-15인(예정) (국외연자 5-10인)

4) 주제(예정) : (1) epidemiology

(2) nutrition

(3) exercise

(4) meta-analysis

(5) conclusion

6. 제 3차 부인암예방위원회는 4월 중순에 개최하기로 한다.

## 회원동정

- 이화의대 김승철 교수님께서 2009년 3월 1일에 이대여성암 전문병원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 인제의대 이응수 교수님께서 인제의대 일산백병원장에 취임을 하셨습니다.
- 마리아 병원 장윤석 교수님께서 지난 2월 28일-3월 1일 양일간 대만의 TAICHUNG 시에서 개최된 2009 대만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에 초청되어 초청강연을 하였으며, 그자리에서 외국인으로는 두번째로 대만산부인과학회 명예회원(Honorary Fellow of TAOG)으로 추대되는 gowning ceremony를 갖었습니다.

- 서울의대 강순범 교수님께서 ASGO 초대 회장으로 초대되었으며, 제 1차 심포지엄은 2009년 11월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 ■신입회원 명단

김민정	강서미즈메디병원
김재원	고려의대
박지현	인하의대
이산희	연세의대
최재호	분당제생병원
박상일	원자력의원학

## 2009년 주요 학회 일정

### 8th KGOG Symposium & Workshop

April 16, Daegu, Korea  
Website: [www.kgog.org](http://www.kgog.org)

### 38th Meeting of Korean Society of Gynecologic Oncology & Colposcopy

April 17, Daegu, Korea  
Website: [www.ksgoc.or.kr](http://www.ksgoc.or.kr)

### 100th Annual Meeting of AACR

April 18-22, Denver, Colorado  
Website: [www.aacr.org](http://www.aacr.org)

### 25th International Papillomavirus Conference & Clinical Workshop

May 8-14, Malmo, Sweden  
Website: [www.hpv2009.org](http://www.hpv2009.org)

### 2nd Annual Advanced Upper Abdominal & Bowel Cadaver Surgery Course

May 16-17, 2009, Louisville, Kentucky  
Email: [cathy.buckley@louisville.edu](mailto:cathy.buckley@louisville.edu)

### 2009 ASCO Annual Meeting

May 29-June 2, Orlando, Florida  
Website: [www.asco.org](http://www.asco.org)

### 79th Semi-Annual Meeting of GOG

July 16-19, Baltimore, Maryland  
Website: [www.gog.org](http://www.gog.org)

### 20th World Congress of ISSVD

September 13-17, Edinburgh, Scotland  
Website: [www.issvd.org](http://www.issvd.org)

### 34th Multidisciplinary Congress of the ESMO 15th Congress of the European CanCer Organization (ECCO)

September 20-24, Berlin, Germany  
Website: [www.esmo.org](http://www.esmo.org), [www.ecco-org.eu](http://www.ecco-org.eu)

### 16th ESGO

October 11-15, Belgrade, Serbia  
Website: [www.esgo.org](http://www.esgo.org)

### 15th World Congress on Gestational Trophoblastic Disease

November 12-15, Kochi, India  
Website: [xvworldcongressgtd.org](http://xvworldcongressgtd.org)

### 12th Asia Pacific Cancer Conference

November 12-14, 2009, Tsukuba, Japan  
Website: [www2.convention.jp/20th-apcc/](http://www2.convention.jp/20th-apcc/)

### 47th Semi-Annual Meeting of JSGO

### 1st Biennial Meeting of ASGO

November 21-22, Tokyo, Japan  
Website: [www.jsgo.gr.jp](http://www.jsgo.gr.jp), [www.asiansgo.org](http://www.asiansgo.org)

# 編輯後記

안녕하십니까?

개나리가 꽃망울을 터뜨리고 봄의 전령사인 벚꽃이 물이 올라 2009년 새 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성원에 힘입어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가 어느덧 창립 2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국내 부인종양학 분야는 자궁경부암 백신의 국내 도입, 로봇 수술의 국내 도입과 활성화 등과 함께 난소암에서의 분자치료제에 대한 임상 시험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이들 새로운 예방 및 치료법에 대한 새로운 임상지침이 마련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학회에서는 역대 회장단과 각 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러한 부인종양학의 눈부신 발전을 국내에 전달하고 또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국내 부인종양학의 연구의 결과들을 해외에 알림으로써 국내 부인종양학의 발전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부인암 진료권고안 및 백신 권고안 개발, 부인과 교과서를 편찬하였을 뿐 아니라, 본회의 학회지를 영문학회지로 전환하여 빠른 시일내에 본 학회지가 SCI 학술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전임 회장단의 기획 아래 임상의를 위한 해부학과 같은 종양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시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회원들로부터 호응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학회의 노력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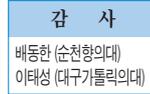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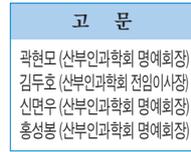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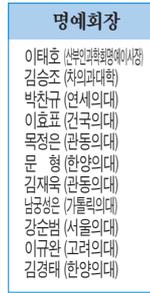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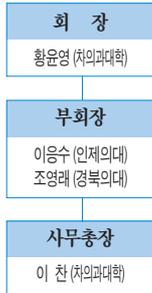
그리고 우선 짧은 지면이나마 이러한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및 회원 여러분의 다양한 최근 활동을 소식지로 알려드리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학회의 업무보고와 회원동정 그리고 국내외 주요학회일정과 24차 학술대회의 프로그램을 담아 회원 여러분들이 학회의 활동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각종 워크숍 참관기 및 학회 참관기, 해외 연수기를 담았으며 IFCCP, AAGL, GOG, SGO 등의 해외 참관기를 담아 참여하지 못한 회원 여러분들도 간접적으로나마 학회 동정이나 변화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진료와 연구로 바쁜신 중에도 소식지의 발간을 위하여 원고를 보내주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 회원들의 성과와 학회의 활약을 계속 전해드리는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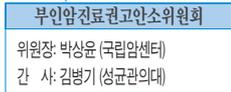
소식지 소위원회 위원장 김 병 기

# 대한부인종양 · 콜포스코피학회 조직도

(2009년 3월 현재)



학술위원회	기획위원회	편집위원회	심사위원회	재정위원회	수련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	홍보위원회	보험위원회	윤리위원회	정보통신위원회	부인암예방위원회
이응수 (인제대)	김영탁 (울산대)	유희석 (아주대)	차순도 (계명대)	김영태 (연세대)	김수녕 (건국대)	안응식 (가톨릭대)	김성한 (고신대)	박상윤 (국립암센터)	김기태 (인제대)	배덕수 (성균관대)	송승상 (서울대)
김병기 (성균관대)	권용일 (한림대)	김석모 (전남대)	강석범 (국립암센터)	김관식 (전북대)	김재훈 (연세대)	고민환 (영남대)	김홍곤 (원광대)	고석봉 (대구가톨릭)	김홍배 (한림대)	고재환 (인제대)	강대회 (서울대)
김용만 (울산대)	김석모 (전남대)	김승철 (이화대)	김대연 (울산대)	김상운 (연세대)	김진우 (가톨릭대)	김동호 (중앙대)	남상륜 (충남대)	박일수 (경북대)	박일수 (경북대)	권상훈 (계명대)	강석범 (국립암센터)
김원규 (고신대)	김태진 (제일병원)	김영태 (연세대)	문해성 (이화대)	김성엽 (제주대)	송재운 (고려대)	김원규 (고신대)	박진원 (단국대)	류기성 (가톨릭대)	박충학 (단국대)	김대연 (울산대)	권용일 (한림대)
김재원 (서울대)	김용민 (차의과대학)	김재원 (서울대)	송승훈 (고려대)	김학순 (충북대)	서동수 (부산대)	김태웅 (가톨릭대)	박 현 (차의과대학)	박동춘 (가톨릭대)	송은섭 (인하대)	김홍곤 (원광대)	김병기 (성균관대)
김재훈 (연세대)	김중혁 (울산대)	김중혁 (울산대)	이기현 (관동대)	노정훈 (대전음지)	유상영 (원제력의원)	니영정 (차의과대학)	심재철 (동국대)	배재만 (건국대)	윤민수 (부산대)	성석주 (차의과대학)	김용범 (서울대)
남계현 (순천향대)	김중혁 (울산대)	박영한 (한림대)	장석준 (아주대)	박태철 (가톨릭대)	이승영 (원제력의원)	남계현 (순천향대)	임경택 (제일병원)	이광범 (가천대)	이선경 (경희대)	이선주 (건국대)	이정필 (아주대)
박태철 (가톨릭대)	박동춘 (가톨릭대)	이종민 (경희대)	처동수 (원주대)	송은섭 (인하대)	이준민 (경희대)	심재철 (동국대)	윤인수 (부산대)	이정원 (삼성의료원)	이승호 (영남대)	이은주 (중앙대)	이선영 (차의과대학)
이낙우 (고려대)	유상영 (원제력의원)	장기홍 (아주대)	처문석 (동아대)	이낙우 (고려대)	이태성 (서울대)	윤인수 (부산대)	정민형 (경희대)	정상근 (차의과대학)	이원철 (가톨릭대)	이정원 (성균관대)	최석철 (원제력의원)
이선경 (경희대)	이재관 (고려대)	조치흠 (계명대)	오병찬 (전북대)	이두진 (영남대)	이택상 (서울대)	장기홍 (아주대)	주원덕 (울산대)	정현훈 (서울대)	정철호 (인제대)	한세준 (조선대)	송승훈 (고려대)
이윤순 (경북대)	주 응 (이화대)		김기형 (부산대)	이택상 (서울대)	임경택 (제일병원)	주 응 (이화대)	황인택 (대전음지)	최석철 (원제력의원)	조삼현 (한양대)	송재운 (고려대)	황성욱 (인하대)
조치흠 (계명대)											



**이 사**

강순범(서울대)	김중덕 (전북대)	박인서 (성균관대)	오병찬 (전북대)	이현영 (청화병원)
강재성(고려대)	김학순 (충북대)	박일수 (경북대)	유희석 (아주대)	이효표 (건국대)
김경태(한양대)	김현찬 (인제대)	박종택 (차의과대학)	윤민수 (부산대)	장윤서 (마리아병원)
김기태(인제대)	김현호 (동아대)	박찬규 (연세대)	이경희 (원제력의원)	전중수 (관동대)
김성한(고신대)	남궁성은 (가톨릭대)	박찬용 (가천대)	이규완 (고려대)	조삼현 (한양대)
김수녕(건국대)	남상륜 (충남대)	배덕수 (성균관대)	이선경 (경희대)	조영래 (경북대)
김승조(차의과대학)	남계현 (순천향대)	배도환 (중앙대)	이승호 (영남대)	차순도 (계명대)
김승철(이화대)	남주현 (울산대)	배동한 (순천향대)	이응수 (인제대)	최호선 (전남대)
김영탁(울산대)	노홍태 (충남대)	배석년 (가톨릭대)	이의돈 (원제력의원)	한세준 (조선대)
김영태(연세대)	목정은 (관동대)	서영욱 (계명대)	이준모 (가톨릭대)	허주영 (경희대)
김원규(고신대)	문 형 (한양대)	송승상 (서울대)	이진웅 (울지대)	황윤영 (차의과대학)
김재욱(관동대)	박상윤 (국립암센터)	안응식 (가톨릭대)	이태성 (대구가톨릭대)	



## 예방효과가 오래 지속되도록 개발된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서바릭스**

### • Strong Immune Response

- 서바릭스에 사용된 혁신적인 항원보강제 AS04(Adjuvant System 04)는 강한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sup>1</sup>
- 10세~55세에서 HPV 16형과 18형에 대한 항체가 높게 유도되었습니다.<sup>2,3</sup>

### • Sustained Protection

- 서바릭스는 첫 접종 후 6.4년 까지
- HPV 16형과 18형에 대한 항체를 초기부터 높게 유도하여,<sup>4</sup> 자연면역에 의한 항체보다 11배 이상 높게 유지하였습니다.<sup>5,6</sup>
- HPV 16형과 18형에 의해 유발되는 전암병변을 100%까지 예방하였습니다.<sup>5,6</sup>

### • Safety Profile

- 서바릭스는 전반적으로 내약성이 우수하였습니다.<sup>4,6,7</sup>
- 대부분의 이상반응은 경증 내지 중등증이었으며 일시적이었습니다.<sup>4,7</sup>



**Ref.** 1. Giannini SL et al. Enhanced humoral and memory B cellular immunity using HPV 16/18 L1 VLP vaccine formulated with the MPL/aluminium salt combination (AS04) compared to aluminium salt only, *Vaccine* 2006;24: 5937-49  
2. Schwarz TF. Human papillomavirus -16/18 candidate vaccine adjuvanted with AS04 and its impact on the incidence of cervical cancer, *Expert Rev Obstet Gynecol.* 2007;2(3): 293-303  
3. 서바릭스® 국내 허가사항 (2008.07.14)  
4. Paavonen J et al. Efficacy of a prophylactic adjuvanted bivalent L1 virus-like-particle vaccine against infection with human papillomavirus types 16 and 18 in young women: an interim analysis of a phase III double-blind, randomised controlled trial, *Lancet* 2007;369: 2161-70  
5. Wheeler CM et al. High and sustained HPV-16 and 18 antibody levels through 6.4 years in women vaccinated with Cervarix™ (GSK HPV-16/18 AS04 vaccine), *ESPID* 2008: Abstract  
6. Harper DM et al. Sustained immunogenicity and high efficacy against HPV-16/18 related cervical neoplasia: long term follow up through 6.4 years in women vaccinated with Cervarix™ (GSK's HPV 16/18 AS04 candidate vaccine), *Gynecol. Oncol.* 2008;109: 158-9  
7. Harper DM et al. Efficacy of bivalent L1 virus-like particle vaccine in prevention of infection with human papillomavirus types 16 and 18 in young women: a randomised controlled trial, *Lancet* 2004;364: 1757-65

# The treatment for the first-relapse **SCLC** & **Ovarian Cancer**



- Hycamtin is more effective in platinum-sensitive patients, compared with platinum-resistant patients<sup>1</sup>
- Well-defined side-effect profile<sup>2</sup>

## 하이캄틴<sup>®</sup>

(염산토포테칸)

### References

1. Bookman MA, Malmstrom H, Boils G, et al. *J Clin Oncol*. 1998;16:3345-52.
2. Hycamtin<sup>®</sup> (topotecan HCl) Prescribing Information.

\* SCLC : Small Cell Lung Cancer

### 하이캄틴 (Topotecan HCl)

- **주성분**  
1 바이알 중 염산토포테칸 4.49mg (토포테칸으로서 4mg)
- **효능, 효과 및 용법, 용량**  
표준화학요법에 실패한 전이성 난소암의 치료  
(화학요법에 실패한 재발성 소세포폐암의 치료)

- **금기사항**  
다음의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에 과민반응을 보인 기왕력이 있는 환자에게는 사용해선 안된다.  
2) 이 약은 임신부, 수유부 또는 심각한 골수 억제 환자에 사용해선 안된다.



# 제넥솔은 희망입니다!



## 고순도 파클리탁셀 - 제넥솔

위암  
적응증  
추가

- ① 제넥솔주는 국산 1호 파클리탁셀 제제입니다.
- ② 식물조직배양법으로 생산되어 순도가 높고(>99.0%), 품질이 균일합니다.
- ③ 파클리탁셀에 대하여 FDA의 DMF(Drug Master File)를 승인받아 기존 파클리탁셀 제제와 동등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승인번호 14338)
- ④ 유방암, 비소세포폐암 및 위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 2상 임상시험에서 우수한 항종양 효과와 안전성을 나타내었습니다.<sup>1,2)</sup>
- ⑤ 위암에도 처방할 수 있어 오리지널 제제와 적응증이 동일합니다.

# 제넥솔 - 주

GENEXOL - inj (paclitaxel)

<sup>1)</sup> Jung et. al.,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 33(6) : 451~457, 2001    <sup>2)</sup> Lee et. al.,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 35(1) : 30~34, 2003    • EDI code : 30mg / 5mL - A63200141, 100mg / 16.7mL - A63200142

TAXOL<sup>®</sup>  
(paclitaxel)

*Choose life*

- Proven Activity & Safety
- Flexible Dosing and Scheduling
- Validated Continually Within Cooperative Group Trials

그 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던 BMS TAXOL이 보령제약에서 새롭게 출발합니다.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